

오르비클래스(<https://class.orbi.kr/>)

1타 같은 N타

Zola 생운

첫해~작년까지의

ebs 수특 문항

주제별 모음(1)

1~3단원

- 개념 공부+기출 문제 풀이까지 끝낸 분들을 위한 용도임.
- 주제별로 공부하면서 진행해도 되고, 처음부터 주욱 봐도 되고, 킬러나 약점 주제 중심으로 봐도 됨. 님들이 알아서 하셈. 1번 풀고 버리면 됨.
- Zola가 답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음. 틀리면 우선 자신을 의심할 것. 그리고 내용 확인할 것. 그래도 이상하다 싶으면 대부분은 Zola가 잘못된 것임. 그러니 반드시 이상한 것은 질문할 것. Zola는 오류가능한 존재임.
- 자원 절약을 위해 1쪽 2면 인쇄 버전으로 설정하였음.
- 발문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한 것' 을 고르면 됨.(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경우에는 발문에 밝혀 두었음)
열공+즐공=대박!!!



서울대 사회교육과 수석(졸) 강사의 콘텐츠 보물 창고

(검색: 생운은 김준호)

■ 주제 목차 ■

Zola 생운 1 - 개념의 모든 것		Zola(김준호) 선생님	
대단원	주제 번호	주제	백지 복습 정도
1	1-1	윤리학 구분	
	1-2	동양 윤리	
	1-3	서양 윤리	
	1-4	도덕적 추론	
	1-5	밀의 자유론	
2	2-1	죽음관	
	2-2	낙태, 안락사, 뇌사, 생명복제	
	2-3	성·사랑	
	2-4	가족 윤리	
3	3-1	직업 사상가	
	3-2	직업 윤리	
	3-3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니부어)	
	3-4	정의 기본+아리스토텔레스	
	3-5	분배정의	
	3-6	소수자우대정책	
	3-7	교정정의	
	3-8	국가관	
	3-9	시민불복종	
4	4-1	과학기술과 윤리	
	4-2	정보윤리	
	4-3	환경윤리(서양의 자연관)	
	4-4	환경문제와 미래세대	
5	5-1	예술	
	5-2	의식주	
	5-3	다문화	
	5-4	종교	
6	6-1	소통 윤리	
	6-2	국제관계론	
	6-3	국제평화론	
	6-4	해외원조	
(넉넉하게) 최소 필요 장+a			

1-1

윤리학의 분류(수특 1강)

* 번호 보는 법

앞 숫자 : 대단원 번호임

뒤 숫자 : 자료 나가는 순서임

예 1) 2-2 → 대단원 2단원의 2번째 자료라는 의미임(1장임)

예 2) 2-31) → 대단원 2단원의 3번째 자료의 첫째장이라는 의미임(2장 이상임)

zola 풀이

1)[18 ebs 수특]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윤리학은 도덕 문제의 실천적 해결을 핵심 과제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해야 할지 갈등하는 상황에서 도덕 이론을 적용하여 윤리적으로 타당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을: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룸으로써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판단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의 윤리 이론이 필요하며, 윤리학은 이에 대한 탐구에 주력해야 합니다.

병: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명제의 논리적 타당성 분석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니라, 안락사를 선이나 악으로 규정할 때 선과 악의 의미는 무엇인지, 판단 논리에 모순이 없는지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보기>

- ㄱ. 갑은 각 사회의 도덕 관습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윤리학의 목표로 삼는다.
- ㄴ. 을은 윤리학이 사람들이 따라야 할 도덕 원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 ㄷ. 갑, 을은 병과 달리 윤리학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당위의 학문이어야 한다고 본다.
- ㄹ. 병은 을과 달리 윤리학은 이론의 정립보다 현실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다.

2)[20 ebs 수특]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은?

갑: 우리는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면서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을: 우리는 “인생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윤리학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면서 인간의 삶을 안내하고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윤리학은 당위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하는가?
- ② 윤리학은 행위나 행위자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가?
- ③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개념 분석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
- ④ 윤리학은 경험에 근거하여 도덕적 관행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 ⑤ 윤리학은 도덕 이론의 정립보다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3)[19 ebs 수특] 아래 두 문제를 푸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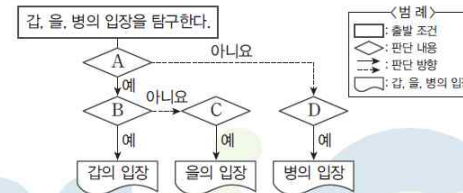
[3~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 윤리학은 공리주의 윤리, 의무론적 윤리와 같이 어떤 원리가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본질로 삼아야 한다.

을: 윤리학은 정보 윤리, 환경 윤리, 생명 윤리와 같이 현대인의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병: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이나 풍습과 같은 도덕적인 현상과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3 갑, 을, 병의 입장을 아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A: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의 기술보다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데 힘써야 하는가?
- ㄴ. B: 윤리학은 다양한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절한 도덕 이론을 활용해야 하는가?
- ㄷ. C: 윤리학은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접 학문과 연계해야 하는가?
- ㄹ. D: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 추론의 타당성 검증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 갑, 을, 병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판 방향	비판 내용
①	갑이 을에게	도덕 현상에 대한 경험 과학적 탐구를 윤리학의 본질로 삼아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②	을이 갑에게	윤리학은 도덕 이론의 정립보다 구체적 도덕 문제 해결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③	을이 병에게	사회 집단의 구체적인 도덕적 관행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④	병이 갑에게	윤리학은 행위자가 지녀야 할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⑤	병이 을에게	윤리학은 당위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4[22 ebs 수특] 학생 답안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갑, 을의 윤리학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십시오.

갑: 윤리학은 의무론, 공리주의와 같이 도덕적 행위의 근본 원리로 성립될 수 있는 이론 탐구를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을: 윤리학은 환경 윤리, 사회 윤리와 같이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윤리학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윤리학이 ㉠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해야 하며, ㉡ 도덕 판단 기준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을은 윤리학이 ㉢ 현실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 경험적 세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현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인간이 따라야 할 이상적인 삶의 방향을 보여 주는 것이 윤리학의 과제라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26 ebs 수특] 푸세용~

(가) 윤리학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해 도덕 원리를 근거로 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나)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룸으로써 현실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이론을 정립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 윤리학은 행위의 옳고 그름과 같은 실천적 물음에 대한 해답 제시가 아니라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보기 >
 ㄱ. (가)는 현실의 윤리 문제 해결 방안의 근거로 (나)를 활용한다.
 ㄴ. (나)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연구를 주된 과제로 삼는다.
 ㄷ. (다)의 지식은 (나)의 이론 정립 과정에 활용되기도 한다.
 ㄹ. (나)와 (다)는 가치 판단 없이 도덕 이론을 정립하는 데 주력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동양 윤리(자연관+인간관)(수특 2+11강)

zola 풀어!

예[15 ebs 수특 활용, 주관식] ㉠에 들어갈 진술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나는 하늘의 의지가 인간에게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갑이라는 사상가가 “성실은 하늘의 도(道)이고, 성실하려는 것은 인간의 도이다.”라고 한 것도 나와 같은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을 사상가는 “하늘은 어질지 않아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마치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라고 하였다. 내가 보기에 을 사상가는 [㉡]라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본다.

- <보기>**
 ㄱ. 인간이 가진 도덕성의 근원을 하늘에서 찾을 수 있다
 ㄴ. 하늘이 인간과 다른 존재 모두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ㄷ.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
 ㄹ. 인간은 하늘의 도를 본받아 인(仁)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

끼[20 ebs 수특] (가), (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모든 중생이 다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거든, 그들을 잡아서 먹거나 해치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거나 해치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다. 모든 땅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온기와 존재는 다 나의 본래 몸이다.
 (나) 자신의 마음을 남김없이 실현하는 자는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면 하늘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자신의 본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에 개의치 않고 다만 자신의 몸을 닦아서 명(命)을 기다리는 것이 명을 바르게 세우는 방법이다.

- ① (가)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강조한다.
 ② (가)는 세계의 모든 존재들의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③ (나)는 인간이 하늘을 본받아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강조한다.
 ④ (나)는 자연이 무목적의 질서를 담고 있는 무위(無爲)의 체제임을 주장한다.
 ⑤ (가), (나)는 인간과 자연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한다.

8[15 ebs 수특] 다음 사상의 관점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 세 개의 갈대가 빗방에 서려고 할 때 서로서로 의지하여야 서게 될 수 있다. 만일 그 하나를 버려도 둘은 서지 못하고 만일 둘을 버려도 하나는 또한 서지 못하여, 의지하여야만 서게 되는 것이다.
-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滅)하기 때문에 그것이 멸한다. 무명(無明)으로 인해 온통 괴로움뿐인 덩어리가 생기고,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온통 괴로움뿐인 덩어리가 멸한다.

< 보기 >
 ㄱ. 세상 모든 존재는 각각 개별적인 실체임을 인정해야 하는가?
 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가?
 ㄷ. 상호 의존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가?
 ㄹ. 만물의 불변함을 깨달아 초월적 무(無)의 세계를 추구해야 하는가?

9|[18 ebs 수특] (가), (나), (다) 사상의 자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모든 것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성인도 어질지 않아 백성을 모두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 (나)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그것이 멸한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다)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 한다. 그러므로 천지(天地)에 가득 찬 기운은 나의 몸이요, 천지를 운용하는 원리는 나의 본성이 된다.
- ① (가)는 자연을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로 파악한다.
 ② (나)는 만물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멸(生滅)한다고 주장한다.
 ③ (다)는 자연을 유용성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본다.
 ④ (가), (나)는 (다)와 달리 인간이 주인 의식을 지니고 자연을 대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가), (나), (다)는 모두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해야 한다고 본다.

10|[14 ebs 수특 활용, 주관식]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1개~모두)

- (가) 큰 도(大道)가 사라지니 인의(仁義)가 생기고, 지혜가 발달하니 크나큰 허위가 생겨났다. 육친이 화목하지 못하니 효(孝)와 같은 윤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국가가 혼란에 빠지자 충신(忠臣)이 나타났다.
- (나) 인간의 물질적 욕망은 무한하지만, 제화는 한정되어 있어서 지구상의 모든 자연 자원은 고갈되고 있다. 그리고 자연 스스로 지니고 있는 자정 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자연환경도 황폐화되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해가고 있다.

- <보기>
- ㄱ.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 ㄴ. 자연에 도덕적 원리가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 ㄷ. 자연을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물질 세계로 이해해야 한다.
 - ㄹ. 자연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임을 알아야 한다.

11|[22 ebs 수특]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도(道)의 입장에서 보면 사물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물건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귀하고 남은 천한 것이다.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귀하고 천한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정해 주는 것이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에 비하여 크다는 입장에서 말하면 만물에는 크지 않은 것이 없게 되며, 그것에 비하여 작다는 입장에서 보면 만물에는 작지 않은 것이 없게 된다.

- 보기
- ㄱ. 선악이나 시비의 구별은 상대적인 것인가?
 - ㄴ.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 ㄷ. 제도와 규범이 무너져서 사회가 혼란한 것인가?
 - ㄹ. 성인이 되기 위해 분별적 지혜를 지녀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21 ebs 수특] 옳은 것은?

(가) 갑: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바탕대로만 따른다면 선하게 될 수 있으나, 이것이 내가 말하는 바의 본성이 선하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의 잘못이 아니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을: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본성을 버리고 각기 제 마음만을 따르며 서로의 마음속을 엿보아 천하를 안정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뒤에 문화 따위 장식을 달고 학문 같은 박식(博識)을 덧붙였으나 그런 장식은 소박한 본질을 잃게 하고 박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보기
- ㄱ. A: 인간은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 ㄴ. B: 선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가?
 - ㄷ. B: 백성이 도덕적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 ㄹ. C: 도(道)와 일치되는 삶을 통해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22 ebs 수특] 어떻게 푸는지 알지? 골라!

(가) 갑: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도 있다. 율음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것이 있고, 그릇된 것으로 말미암아 율음이 있다. 그래서 성인은 자연(自然)에 비추어 생각한다.
 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다. 비유하면 세 개의 갈대야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것과 같다.

(나)

- 보기
- ㄱ. A: 사욕을 극복하고 예(禮)를 되찾아 인(仁)을 실현해야 한다.
 - ㄴ. B: 현세의 도덕적 삶이 내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ㄷ. B: 생명에 대한 차별 의식과 사물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 ㄹ. C: 연기(緣起)를 깨달아 다른 존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4][22 ebs 수특]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 사상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의 마음을 텅 비우게 하고, 그들의 배를 채워 주며, 그들의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들의 뼈대를 강하게 한다. 백성을 지식도 없고 욕망도 없게 하며, 지식을 가진 자들이 설치지 못하게 한다. 무위의 정치를 행하면 다스리지 않음이 없게 된다.
 (나) 천하를 얻는 데에는 원칙이 있다. 백성을 얻으면 이미 천하를 얻은 셈이다. 백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축적해 주고, 싫어하는 바를 그들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군주가 인(仁)을 좋아하면 제후들이 그를 위하여 민심을 몰아다 줄 것이다.

- ① 통치자는 백성에게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함을 간과한다.
- ② 인위적인 제도와 덕목이 사회 혼란의 원인임을 간과한다.
- ③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 ④ 타고난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⑤ 무위(無爲)의 다스림이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고 지나치게 강조한다.

15][21 ebs 수특] 옳지 않은 것은?

(가) 인간은 하늘의 도(道)를 본받아, 다른 인간과 존재를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인(仁)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 인간은 인간의 의지나 욕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를 인식하고,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례>

○○지역 △△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A는 중장비를 동원하여 △△산을 대규모로 깎아 내고 거대한 오락 시설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 ① (가): 인간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지향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 ② (가): 인간은 자연의 생명력을 도덕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 ③ (나): 자연은 일정한 목적이 없는 무질서의 체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 ④ (나):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 ⑤ (가), (나): 인간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살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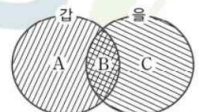
16][24 ebs 수특]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셈~

비구들이여, 무명(無明)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行]이,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알음알이[識]가, 알음알이를 조건으로 정신·물질[名色]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六入]가,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觸]이,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受]이,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愛]가, 갈애를 조건으로 취착[取]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有]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生]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죽음과 근심·탄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苦蘊]가 발생한다.

- ① 오온(五蘊)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 ② 욕망을 절제하고 무명(無明)에서 벗어나야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는가?
- ③ 중도(中道)를 실천함으로써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 ④ 모든 존재와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⑤ 인간의 옳은 행위[善業]가 아닌 악한 행위[惡業]로 인해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되는가?

17][24 ebs 수특]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전쟁이 없으므로 말이 농사를 짓는 데 쓰이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전쟁이 그치지 않아 말이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다. 도는 무위(無爲)하며 성인(聖人)은 도 하나만을 지녀 천하의 본보기가 된다.</p> <p>을: 진인(眞人)은 심을 기뻐할 줄 모르고,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모른다.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무심히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히 자연을 따라올 뿐이다. 그 시초(始初)를 모르고, 그 끝을 알려 하지 않는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별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div>

- ① A: 외물(外物)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 ② A: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고 마음을 비워 깨끗하게 해야 한다.
- ③ B: 무위의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 ④ B: 시비(是非)를 분별하지 않고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 ⑤ C: 인위적으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가야 한다.

18][26 ebs 수특] 푸제용~

사람들은 누구나 타고난 바탕대로만 따르면 선하게 될 수 있으니, 이것이 곧 내가 말하는 바의 본성이 선하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의 잘못이 아니다. 인의 예지(仁義禮智)는 밖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때로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서로 두 배 또는 다섯 배가 되어 계산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을 남김없이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기>

- ㄱ.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兼愛]을 실천해야 한다.
- ㄴ.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도덕적 기개를 길러야 한다.
- ㄷ.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발휘하여 이기적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
- ㄹ.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찾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3

서양 윤리의 접근(수특 2강)

19)[20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질문에 모두 옳게 대답한 것은?

갑: 쾌락과 고통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강력성, 지속성, 확실성, 원근성이다. 그리고 쾌락과 고통의 가치가 그것을 낳는 행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다산성과 순수성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범위, 즉 쾌락과 고통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도 고려해야 한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질문	대답	
		갑	을
①	쾌락을 주는 행위는 선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악한가?	예	예
②	도덕적 행위의 실천과 사회적 행복의 실현은 양립 가능한가?	예	아니요
③	행위를 평가할 때는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해야 하는가?	예	아니요
④	도덕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요	예
⑤	쾌락을 계산할 때는 쾌락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20)[19 ebs 수특, 주관식]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

갑: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균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한다. 아울러 쾌락과 고통은 양적으로 계산 가능하며,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을: 우리의 규칙은功利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규칙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즉 개별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규칙의 준수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그 규칙의 옳고 그름은 그것의 준수가 궁극적인 목적을 증진시키는지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병: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하급 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보기
- ㄱ. 갑은 병과 달리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ㄴ. 을은 갑과 달리 개별 행위의 유용성보다 규칙의 유용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 ㄷ. 병은 갑과 달리 모든 인간을 본래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 ㄹ. 갑, 을, 병은功利성에 근거해 도덕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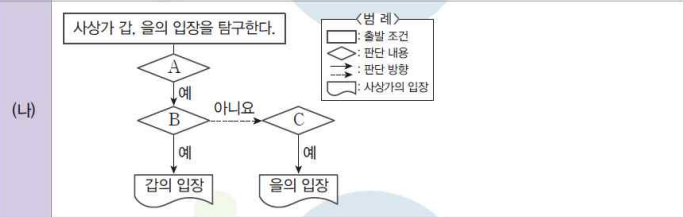
21)[19 ebs 수특, 객관식 같은 주관식] 학생 골라.

- 행위를 못하게 막는 공포가 아니라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가 바로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며, 우리가 뜻하는 공포도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은 또한 책임의 대상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다.
- 모든 생명체는 더 이상의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이다. 이 점에 있어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지 인간만이 생명을 위하여, 즉 그들의 자기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예외이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도덕 철학은 미래의 공포보다는 희망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
현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 기술의 발전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		✓		✓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존재는 책임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		✓	✓	
인류의 존속을 위해 현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해 비호해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		✓	✓	✓		

22)[20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도덕적 삶의 본질적인 핵심은 '우리가 어떤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즉 도덕적 개인은 무조건 규칙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훌륭한 개인,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인은 특수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을: 지성, 기지, 판단력, 그리고 용기, 결단력, 끈기 같은 기질상의 속성들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품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행하지 못하면 악하거나 해로운 수도 있다.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쓸모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은 일 자체로 선택한다.



- ① A: 도덕은 행복 실현에 기여해야 비로소 가치를 지니는가?
- ② B: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위인가?
- ③ B: 바람직한 행위는 선한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어야 하는가?
- ④ C: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인가?
- ⑤ C: 도덕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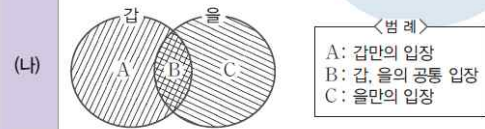
23)[19 ebs 수특]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성은 상호 무관심을 중시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의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 여성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성장이 이루어지는 때는 그들이 이 두 가지 입장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권리와 책임의 화합을 추구할 때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도덕적 원리는 경쟁하는 주장들 간, 곧 나와 나, 당신과 제3자 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원리이다. 주장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직 하나의 원리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정의의 원리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고 생각한다.

- 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책임보다 개인의 권리 보장이 중요함을 경시하고 있다
- ② 어떠한 갈등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 도덕 원리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③ 도덕 문제가 발생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행동해야 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④ 개인의 주관적 감정보다는 이성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이 중요함을 경시하고 있다
- ⑤ 남성 중심적 정의 윤리와 여성 중심적 배려 윤리가 조화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24)[19 ebs 수특]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

(가) 갑: 인간의 선행만 아니라 인간 외적인 사물의 선을 탐구해야 하며, 즉 목적 자체의 인정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까지 확장해야 한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한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
 을: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존재는 모두 목적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단순히 이런저런 의지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과 이성적인 존재는 모두 자신에게 하는 행위든, 다른 이성적인 존재에게 하는 행위든 모든 행위에서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도 생각되어야 한다.



【 보기 】
 ㄱ. A: 자연과 인간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ㄴ. B: 인간이 따라야 할 정언 명법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ㄷ. B: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ㄹ. C: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예견해 도덕적으로 행위 해야 한다.

25)[18 ebs 수특]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적 행위란 종(種)이 진화하는 동안 인간이 따르는 법칙에 대한 적응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당위로서의 도덕규범에 대한 경험을 통해 반성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진화 과정은 당위의 자연사(自然史)가 아닌 존재의 자연사만을 보여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떠한 당위로서의 도덕규범도 경험적 사실로부터 추론될 수는 없습니다.

갑: 그렇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협동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아 스스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도덕은 생물학적 원인에서 비롯된 경험적 사실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을: 제 입장에서 판단할 때 당신의 주장은 고 생각합니다.

- ① 도덕규범은 진화로부터 파생된 산물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② 도덕의 근원이 생물학적 원인에서 비롯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당위로서의 도덕규범이 경험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 ④ 도덕의 근거가 인간 종의 발생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인간의 생물학적 기원이 도덕의 합리적 기초로 작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26)[22 ebs 수특]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은 비록 충분히 신성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인격에서 인간성은 그에게 신성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창조물에서 사람들이 의욕하고 그에 대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한낱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오로지 인간만이 목적 그 자체이다. 인간은 곧 그의 자유의 자율의 힘에 의해, 신성한 도덕 법칙의 주체이다.
 을: 인간은 누구나 어떤 형태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 누군가의 이득이거나 딸이고, 어떤 도시의 시민이며, 어떤 민족의 일원이다.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좋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들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양한 빛과 유산, 정당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것들은 내 삶의 주어진 바와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 ① 도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유덕한 품성을 길러야 하는가?
- ② 행위 결과의 유용성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가?
- ③ 공적 영역에서는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 원리로 적용해야 하는가?
- ④ 도덕적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결과가 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가?
- ⑤ 오직 의무 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27)[20 ebs 수특]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윤리학은 뇌의 작동 방식을 탐구하는 신경 과학 분야의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도덕적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약물을 통해 도덕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나) 윤리학은 진화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타적 행동 및 성품과 관련된 도덕성은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한 결과이다. 인간은 자기 생존과 번식 혹은 자기 유전자 복제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타적 행위를 한다.

- ① (가)는 뇌를 활용한 영상을 확인하여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성의 역할을 과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나)는 도덕적 행위를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적응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본다.
- ④ (나)는 과학이 도덕성 형성 과정이 아닌 도덕적 삶의 방향을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가), (나)는 윤리적 행위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탐구 방법이 있다고 본다.

28)[22 ebs 수특, 주관식] 고르세용~

- 인간에게는 다른 모든 동물들과 공유하는 본성에 따른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다. 가령 모든 동물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신의 존재가 보존되기를 갈망한다.
-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고유한 이성이라는 본성에 따른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다. 인간은 신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연적 경향성과 사회 속에서 살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보기

- ㄱ.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보편적인 법이 있다.
- ㄴ.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 이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 ㄷ. 도덕규범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다.
- ㄹ.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성향을 지닌다.

29)[21 ebs 수특]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의식은 신체와 엄격히 구별되는 정신이 아니라 뇌를 비롯한 신체 기능을 포함한다. 따라서 마음은 더 이상 신체와 독립적인 정신의 순수한 산물이 아니며, 도덕적 동기와 책임은 뇌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전제로 성립한다.
- (나) 도덕은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에서 기인하고, 도덕적 판단은 규범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는 선천적 성향이며, 선천적 성향은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 ① (가):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별개이며, 도덕적 행위는 정신의 산물이다.
- ② (가): 도덕 판단 과정을 과학적 측정 방법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③ (나): 인간의 이타적 행위는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이다.
- ④ (나):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자연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 ⑤ (가), (나): 인간은 감정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성적인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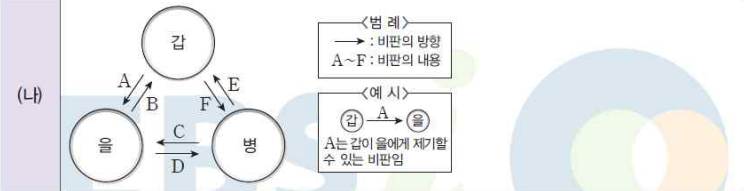
30)[21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세계에서 또는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선의지뿐이다. 지성, 기지, 판단력, 그 밖에 정신의 재능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들, 또는 용기, 결단성, 초지일관성 같은 기질상의 성질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악하고 해가 될 수도 있다.

- ① 용기, 결단성과 같은 기질들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인가?
- ② 행복 그 자체를 도덕적 행위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 ③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인가?
- ④ 의무 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가?
- ⑤ 지성과 같은 정신적 재능은 도덕적 행위를 위한 필요충분 조건인가?

31)[22 ebs 수특, 주관식]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용~

(가) 갑: 선의 추구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징적으로 전통에 의해 규정된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은 관행에 내재된 선택만 아니라 개인적 삶의 선에도 타당하다.
 을: 어떤 행위가 가져오는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을 비교하여 차감했을 때 쾌락 쪽이 남는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고통 쪽이 남는다면 일반적으로 그른 것이다.
 병: 도덕 법칙만이 존경의 대상일 수 있고 명령이 될 수 있다.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뿐이며 주관적으로는 실천 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 즉 그 법칙을 따르겠다는 준칙뿐이다.



보기

- ㄱ. A: 도덕적 선택을 할 때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 ㄴ. B, D: 선한 성품에서 나온 행위가 도덕적 행위임을 간과한다.
- ㄷ. C, E: 도덕적 행위는 자연적 감정이 아닌 선의지를 따르는 것임을 간과한다.
- ㄹ. F: 보편타당한 원리보다 구체적 맥락에 따라서 행위 해야 함을 간과한다.

32)[22 ebs 수특, 주관식]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모두 고르세요~

- 남성과 여성은 매우 다르게 독립과 친밀 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청년기에 성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서 서로 다른 삶의 진리를 강조하게 된다. 남성은 자아를 규정짓고 그 힘을 부여하는 독립을 강조하고, 여성은 인간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친밀 관계를 강조한다.
- 여성들이 도덕 문제를 구성하는 데 고려해야 할 것은 책임과 배려의 개념이 핵심적이라는 것, 여성들의 사고에서는 자아관과 도덕관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남성들과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들의 관점을 포함하는 더욱 확장된 발달 이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보기

- ㄱ. 남녀가 추구하는 도덕적 지향성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 ㄴ. 인간관계를 고려하고 맥락적으로 사고하는 도덕성을 중시해야 하는가?
- ㄷ. 남녀의 도덕적 사고의 차이를 성적 차별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하는가?
- ㄹ. 감정이 배제된 도덕 판단일수록 도덕적 가치가 더 높다고 보아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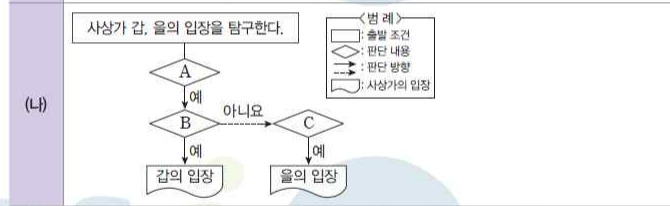
33)[22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다시 공포와 전율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두려움의 느낌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윤리적 의무이다. 현대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감안할 때 미래 인류가 맞이하게 될 가능한 위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한발 물러서야 하며,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았다면 가지게 될 두려움으로부터 겸손함을 지녀야 한다. 또한 지구 전체의 운영과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소비 습관으로서 겸손함을 부르짖어야 하며, 현대 기술의 능력 내지 권력에 대한 맹신을 지양하고 한계를 지키려는 절제를 실현해야 한다.

- ① 미래에 대한 지식은 책임 윤리의 토대가 될 수 있다.
- ② 기술이 인간에게 끼친 손해는 기술의 진보를 통해 보상받아야 한다.
- ③ 미래 세대가 겪게 될 삶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은 현세대의 책임감을 약화시킨다.
- ④ 겸손함은 개인의 생활 태도에 불과하므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
- ⑤ 기술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공포보다 기술로 인한 삶의 긍정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34)[21 ebs 수특] 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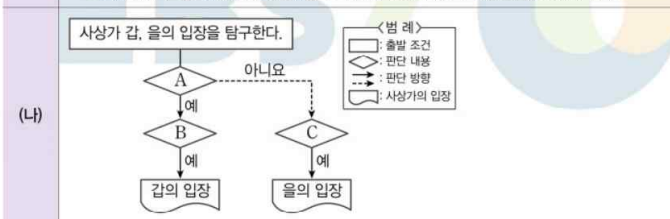
(가) 갑: 우리의 목적은 자연 과학의 대상인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지식과 활동의 영역을 넓히며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에게선 천연의 우물이나 분수를 모방해서 만든 인공 우물이나 분수도 있다. 우리는 천국의 물이라고 불리는 물을 만들어 냈다. 이 물은 마시면 건강이 증진되고 생명이 연장된다.
을: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상상치 않은 상황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물막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 ① A: 과학 기술 연구의 범위와 대상은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② B: 과학 기술을 인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잘못인가?
- ③ B: 과학 기술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④ C: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미래의 생명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은 약화되는가?
- ⑤ C: 과학 기술이 인류의 존속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생태학적 정인 명령에 위배되는 것인가?

35)[24 ebs 수특] 순서도 보는 법 알죠?

(가) 갑: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것에서 기대되는 결과에 있지 않다.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결과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도덕 법칙을 따른 것일 때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을: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행위 해야 한다.



- ① A: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 ② A: 옳은 행위는 사회적 유용성에 근거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③ B: 동정심이나 연민의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행위인가?
- ④ B: 도덕 법칙은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의무의 법칙인가?
- ⑤ C: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모두 증가시킨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인가?

36)[25 ebs 수특, 주관식]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갑: 행위가 도덕성을 갖는 것은 결과를 기대하고 행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행해졌기 때문이다. 의무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행위의 필연성이다.
 을: 덕은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실행하면 우리는 실천에 내재된 선을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선을 성취하는 것이 제지된다.

• 보기 •

- ㄱ. 갑: 도덕은 누구나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인 도덕 법칙에 근거해야 한다.
- ㄴ. 갑: 경향성이 아니라 오직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 ㄷ. 을: 개인은 가족, 이웃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 ㄹ. 갑과 을: 유덕한 품성을 갖추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를 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37)[25 ebs 수특] 푸는 법 아시죠?

(가)	<p>갑: 순전한 법칙 그 자체만이 존경의 대상일 수 있고, 그와 함께 명령될 수 있다. 무릇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경향성의 영향 및 그와 함께 의지의 일체 대상을 전적으로 격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의지에 대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 주관적으로는 이 실천 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 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p> <p>을: 공리성이란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이득·쾌락·선·행복을 날거나 손해·해악·고통·악·불행이 발생하는 일을 막는 경향을 지닌, 어떤 대상에 들어 있는 성질을 뜻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은 만일 그 당사자가 일반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의 행복이 될 것이고, 그 당사자가 특정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행복이 될 것이다.</p>
(나)	

- ① A: 행위의 동기와 결과 모두 옳고 그룹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A: 경향성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도덕적 동기에 따르는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임을 간과한다.
- ③ B: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함을 간과한다.
- ④ B: 도덕 원리의 준수보다 행위자의 도덕적 품성 형성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⑤ B: 사회 전체 이익은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이 아님을 간과한다.

1-5

일의 자유론(수특 여기 저기)

- ▶ Zola Guide **일의 자유론**은 토론, 국가와 윤리, 정보 사회, 소용 윤리에서도 다루어짐.
- * 1-4는 **생략함**.

zola 풀어!!

38)[15-6-13]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반박할 경우 그 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의견 발표를 억압하는 것은 그 의견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 한 사람 이외의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나) 소수의 다양한 의견은 진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진리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수의 발언 기회가 제한되어야 한다.

- 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모두가 합의해야 진리가 된다.
- ② 소수의 의견이 진리이고 다수의 의견이 오류일 수 있다.
- ③ 자유 토론의 과정에서 진리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다.
- ④ 자유로운 논박을 통해 진리에 대한 참된 이해가 가능하다.
- ⑤ 소수 의견이 오류라고 해도 부분적으로는 진리일 수 있다.

39)[16-6-15] 다음 가상 대담 속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p>1</p>	<p>2</p>
<p>3</p>	<p>4</p>

- ① 다수의 의견에 대한 복종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 ② 기존의 진리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 ③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마저 동의해야 진리가 됨을 알게 됩니다.
- ④ 다수에 의해 확립된 의견이 진리의 표준임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 ⑤ 사회적 유용성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40) [20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1</p> <p>선생님께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p>2</p> <p>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간에 최소화되어야 합니다.</p> 
<p>3</p> <p>그렇다면 제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 인가요?</p> 	<p>4</p> <p>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 때문입니다.</p> 

- ① 국가는 개인의 독립성에 대해 최소한으로만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해악 금지의 원칙을 따를 때만 정당한 것이라고 본다.
- ③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경우에는 국가의 통제가 정당하다고 본다.
- ④ 개인의 행동이 본인의 이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국가는 그 행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 ⑤ 사회적으로 다수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개인에게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고 본다.

41) [22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유 원칙은 자유롭지 않을 자유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이 원칙에 따라 개인은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누군가의 자유에 간섭하려고 할 경우 이러한 간섭의 유일한 정당한 목적은 자기방어뿐이다. 즉 사회의 구성원 중 어느 누구에게 그의 의지에 반하여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①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 각자가 주권자인가?
- ② 국가는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개인의 성장을 증시해야 하는가?
- ③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개인의 자유에 포함되는가?
- ④ 타인에게 해악을 주는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⑤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는 타인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42) [21 ebs 수특]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은?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의견을 폐기하고자 할 때, 우리는 결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여전히 옳지 못하다.

- ① 자신과는 다른 주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② 사람들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하는가?
- ③ 다수의 생각을 소수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하는가?
- ④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가?
- ⑤ 절대적 진리 도출을 위해 잘못된 견해는 폐기해야 하는가?

43) [24 ebs 수특] 적절한 것은?

(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토론과 경험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사실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험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론이 필요하다. 잘못된 의견과 이에 근거한 행위는 점차 경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과 토론에서 행해진 논증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판단이 지니고 있는 힘은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옳은 것으로 고칠 수 있다는 인간의 유일한 특성에 달려 있다.
(나)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러면 토론에서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 ① 인간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세요.
- ② 자신이 옳다고 믿는 지식이나 신념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세요.
- ③ 전통적 원리나 학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지니세요.
- ④ 전문적 지식을 지닌 사람들의 견해를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세요.
- ⑤ 사람들에게 의견을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수용하세요.

2-1

삶과 죽음의 윤리(수특 3강)

zola 풀이!

44[ebs 탐스런] 서양 사상가인 갑의 입장에서 (가)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하고 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죽음은 자기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 인간은 죽음을 통해 삶의 유한성을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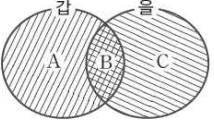
을 : 죽음에는 어떤 윤리적 의미가 있습니까?

갑 : _____ (가) _____

- ① 다른 세상으로 윤회하는 시작이 된다네.
- ②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된다네.
- ③ 인간 사회를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조건이 된다네.
- ④ 도덕적 주체로서 한 인간의 삶의 출발점이 된다네.
- ⑤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어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네.

45[19 ebs 수특, 주관식]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다 골라!

(가) 갑: 현자(賢者)는 삶을 도피하려 하지 않으며,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삶이 그에게 해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는 삶의 부재가 해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현자는 긴 삶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향유하기를 원한다.
 을: 생명이 와서 태어나는 것을 물리칠 수 없듯이, 그것이 떠나가 죽음을 맞는 것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신체만을 길러 생명을 오래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슬픈 일이 아닌가? 세상의 일을 버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하면 생명이 되살아난다. 생명이 되살아나면 참된 생명이 실현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기

ㄱ. A: 죽음은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자연적 과정이다.
 ㄴ. B: 죽음에 대한 실존적 자각을 통해 사회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
 ㄷ. B: 죽음에 대한 고정 관념으로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ㄹ. C: 죽음이 모든 존재의 원리인 도(道)에 근거함을 깨달아야 한다.

46[19 ebs 수특] 다음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 죽음은 현존재에게 가장 고유하고, 가장 극단적이며, 다른 가능성들에 의해 능가될 수 없고,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다.
- 죽음과 관련해 '비본래적' 존재는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려 하고, 세상 사람(평균인)들의 일반적 기준을 자신의 궁극적 가치로 받아들이지만, '본래적' 존재로서 실존은 죽음을 자신에게 압박한 것으로 받아들여면서 자신이 그동안 집착했던 일상적인 가능성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자각한다. 이를 통해 현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죽음으로의 선구(先驅)'를 한다. 즉 죽음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것을 용기 있게 인수하면서 자신의 본래적 가능성을 선택한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현존재는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V	V		V	
현존재는 죽음으로의 선구를 통해 자신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물을 줄 알아야 한다.			V	V	V
현존재는 죽음 이후 영혼이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V			V	V
현존재는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는 자신의 죽음을 회피나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된다.		V	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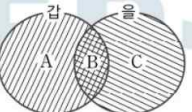
47[20 ebs 수특]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인간은 사라질 육체에 갇혀 지내는 동안은 이데아에 관한 앎, 즉 참된 지혜를 얻기 어렵다. 인간은 순수한 영혼의 상태에 있을 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이 영혼을 정화하는 일이라면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정화될 필요 없이 순수한 영혼을 가질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 (나) 인간은 오온(五蘊)의 집합에 불과하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라는 것도 이 다섯 가지가 모인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모여서 인간 생명이 형성되며 이 요소들이 흩어질 때 생명이 다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죽으면 인간은 다른 곳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한없이 되풀이될 수 있다.

- ① (가)는 죽음을 육체에 갇혀 있던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라고 본다.
- ② (나)는 인간이 죽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죽음을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의 하나로 본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인간은 죽음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된다고 본다.
- ⑤ (가), (나)는 인간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고 본다.

52)[24 ebs 수특] 옳은 것을 <보기>에서 님이 알아서 고르면 됨!

(가) 갑: 아침에 도(道)를 들고 일게 된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선비가 도에 뜻을 두고도 누추한 옷과 초라한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그와 더불어 의(義)를 이야기할 수 없다.
 을: 지인(至人)이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자연을 함께 즐기는 사람이다. 사람과 물건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투지 않고, 과당한 짓을 하지 않으며, 어떤 것을 계획하거나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가고 올 뿐이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보기 •

- ㄱ. A: 죽음이 야기하는 슬픔을 인간의 마땅한 반응으로 보아야 한다.
- ㄴ. B: 죽음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 ㄷ. B: 도덕적 삶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죽음에 대해 알아야 한다.
- ㄹ. C: 죽음의 본질을 파악하여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53)[24 ebs 수특] 옳은 것을 <보기>에서 님이 알아서 고르면 됨!

비구들아, 죽음을 변화하려는 네 가지 근본 진리를 사유하라.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형성된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상(無常)하다. 이것이 첫 번째 근본 진리이니, 사유하고 수행하라. 모든 의식 작용은 고(苦)이다. 이것이 두 번째 근본 진리이니, 다 함께 사유하라. 모든 현상은 무아(無我)이다. 이것이 세 번째 근본 진리이니, 다 함께 사유하라. 모든 번뇌의 소멸이 열반이다. 이것이 네 번째 근본 진리이니, 다 함께 사유하라. 비구들아, 이 네 가지 근본 진리를 사유하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태어남·늡음·병들·죽음·근심·슬픔·번뇌 등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보기 •

- ㄱ.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 ㄴ. 죽음은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는 보편적 현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 ㄷ. 현생에서 업을 쌓아 윤회의 과정에서 다시 태어남을 지향하며 수행해야 한다.
- ㄹ. 만물이 상호 독립적인 실체임을 깨달아야만 생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54)[25 ebs 수특] 옳지 않은 것은?

갑: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 순수한 지식을 갖추고자 한다면 몸에서 벗어나 대상 자체를 혼자 체로 관찰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지혜는 생진이 아니라 우리 사후에나 획득할 수 있다. 우리가 몸의 어리석음에 오염되는 것을 피하면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것 일체를 알게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다.
 을: 죽으면 감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을 때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죽게 된다는 예상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헛소리이다. 왜냐하면 죽음이 닥쳐 왔을 때 고통스럽지 않은데도 죽을 것을 예상해서 미리 고통스러워하는 일은 헛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 ① 갑은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영원불멸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죽음을 통해 감각으로 참된 실재를 알게 된다고 본다.
- ③ 을은 긴 삶보다는 즐거운 삶의 향유가 중요하다고 본다.
- ④ 을은 현명한 사람은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본다.

55)[25 ebs 수특] 옳지 않은 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에 익숙해져라. 모든 좋고 나쁜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으면 감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가사성(可死性)도 즐겁게 된다. 이는 그러한 없이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을 보태기 때문이 아니라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 ① 인간은 죽음을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다.
- ②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흩어지는 것이다.
- ③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
- ④ 현명한 사람은 삶의 중단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⑤ 죽음은 고통이므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면 잊을 수 있다.

2-2

삶과 죽음의 실천 윤리(수특 3강)+생명과학과 윤리(수특 4강)

zola 풀어!!

56[19 ebs 수특]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환자를 자식처럼 온정적으로 대우해 왔던 의사의 부권주의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원칙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고 이는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라는 원칙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의료 상황에 대한 지식과 경험적 측면에서 볼 때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의사에게 더욱 더 충분한 설명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환자에게 특정 의료 행위를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한 후 해당 의료 행위를 허락하거나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 결정에 대한 존중의 참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보기

- ㄱ.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 행위에 대해 충분히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
- ㄴ. 환자는 자신에 대한 의료 행위에 대해 조건 없이 동의해야 하는가?
- ㄷ.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성은 부권주의를 제약하는 핵심 요소인가?
- ㄹ. 환자는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 자율적 결정권을 갖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Zola Guide 부권주의라는 용어는 윤리나 사회 사상에서 중요한 개념임. 생운에서도 중요 사상가들의 글이나 쟁점형에서 사용되니 알아 둘 것.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배와 보호의 특질을 가진 사회관계. 기업에서의 온정주의적 관리 따위가 그 예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1030&cid=42121&categoryId=42121>

57[19 ebs 수특]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부모의 자연적 욕망이 자식의 행복 증진이라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우생학적 강화 시도는 허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는 중요한 의무가 된다. 부모가 자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 삶을 선택할 자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난하지 않듯이, 우생학적 강화는 부모가 단지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을: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거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해 하는 우생학적 강화는 자녀의 자율성과 평등성을 훼손한다. 즉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사람을 자신의 삶의 온전한 주체자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것은 세대 간 자유롭고 평등한 상호성을 파괴한다. 삶의 시작을 우리 가 마음대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자연적 우연성이야말로 자유와 주체의 전제 조건이다.

- ① 갑은 자녀의 행복을 증진하려는 부모의 자연적 욕망 충족을 도덕적 의무로 본다.
- ② 을은 부모에 의한 우생학적 강화는 부모와 자녀 간 평등한 상호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온전한 주체로서의 삶이 오직 우생학적 강화에 달려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우생학적 강화가 자신의 삶을 기획할 자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
- ⑤ 갑은 생식과 관련해 부모의 결정권이, 을은 자연적 우연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58[16 ebs 수특]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신장 중 하나를 기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하나뿐인 심장을 기증하려고 한다면,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거부할 수 있고 또 거부해야 한다. 어머니의 결정이 충분한 설명에 의한 자발적인 것이며, 도덕적인 탁월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생명의 희생과 같은 과도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필요하다.

- ① 장기 기증 행위는 도덕적 가치와 무관하다는 태도
- ② 혈연적으로 관계 없는 장기의 기증만 허용하는 제도
- ③ 장기 기증자의 자율적 의지를 언제나 존중하는 태도
- ④ 장기 기증 행위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
- ⑤ 장기 기증자를 선택하고 수용하는 공적인 기준과 감독

59[17 ebs 수특] 선생님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생명 과학 연구에서 이 네 가지 원칙을 따른다고 할 때, 생명 과학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걸까요?



- 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전제로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악행 금지의 원칙: 타인에게 육체적 해악이나 정신적 상처를 주면 안 된다.
- 선행의 원칙: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소극적 명제를 넘어 타인에게 이익을 주려는 적극적 명제를 따라야 한다.
- 정의의 원칙: 행위에 따르는 이익과 해악을 공정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보기

- ㄱ. 갑: 연구는 피험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 ㄴ. 을: 연구 결과의 성과보다 연구 대상자의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 ㄷ. 병: 연구 시작 전에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ㄹ. 정: 연구 과정의 정보를 제한하여 연구 대상자의 두려움을 줄여야 합니다.

60[17-10교-9] 다음은 우리나라 의료법의 일부 조항이다. 이 조항들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9조 <1> 의료인이나 의료 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20조 <1>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2>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의료인들 간에 환자의 정보를 가능한 한 공유해야 한다.
- ② 의료인은 낙태를 위한 성 감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③ 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환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 ④ 의료인은 임부에게 태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⑤ 의료인은 임부의 알 권리를 태아의 생명권보다 중시해야 한다.

61)[21 ebs 수특]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유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에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가 있습니다. 유전 질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유전자 치료이므로 두 가지 치료 방법을 모두 허용해야 합니다.</p>	<p>후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전자 치료는 허용해야 하지만,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태어날 인공 생명체의 동의 없는 강제적인 개입입니다. 그리고 유전적 개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유전적 개입 없이 태어난 사람과의 차이로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p>
1 갑 을	2 갑 을
<p>체세포 유전자 치료뿐만 아니라 유전 질환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까지 허용해야 합니다.</p>	<p>그렇다면 당신은 '㉠' (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p>
3 갑 을	4 갑 을

- ① 출생 이전의 생명체는 타인의 의지를 따라야 하는 존재이다.
- ② 치료 목적의 유전자 개입은 효용성을 위해 제한하면 안 된다.
- ③ 후세대의 유전자에 영향이 없는 유전자 치료는 허용해야 한다.
- ④ 유전학적 개입으로 태어난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 ⑤ 유전적 개입 여부는 개인의 자아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62)[22 ebs 수특]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경우,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을: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가 인간 존엄성 보호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선택한다고 해서 죽음에 이르는 모든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방법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갑: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인 당사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고한다면, 자신의 죽음 자체 뿐만 아니라 죽음의 방법까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을: 연명 치료 중단으로 자연적인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과 달리, 약물을 주사하는 등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개입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은 살인 행위입니다.

- ① 적극적 안락사가 아닌 소극적 안락사만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②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안락사의 방법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③ 불치병에 걸린 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④ 안락사는 당사자인 환자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 실시되어야 하는가?
- ⑤ 모든 안락사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가?

63)[24 ebs 수특]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나) 회생 불가능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의 동의만으로도 약물을 먹이거나 주사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64)[25 ebs 수특]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닙니다. 그래서 여성은 일정 조건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을: 맞습니다.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임신부의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에 한하여 여성은 인공 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위협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범죄 피해의 결과로 인한 임신, 책임질 수 없는 자녀 출산은 여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공격입니다.

을: 여성의 생명이 위협이 되는 태아는 공격자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 태아를 공격자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① 임신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인공 임신 중절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② 여성의 선택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모든 행위는 비도덕적인가?
- ③ 출산 이후 책임질 수 없는 태아에 대한 임신부의 인공 임신 중절은 정당화되는가?
- ④ 임신부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워 인공 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가?
- ⑤ 모든 생명체는 동등하므로 인공 임신 중절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가?

65][24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동물에 관한 한, 우리는 직접적 의무가 없다. 동물은 자의식이 없고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 일 뿐이다. 그 목적이란 인간이다.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불과하다. 우리가 동물과 관련한 의무를 갖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도덕성에 이로운 소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을: 공장식 축산은 동물에게 엄청난 양의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방출도 크게 증가시킨다. 이 모든 것이 단지 특별한 맛과 조식을 지닌 음식을 먹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식용으로 동물을 대량 사육하는 것은 동물의 고통을 동일한 양의 인간의 고통과 똑같이 계산해야 한다는 공리주의 관점에 반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 ① 갑: 동물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② 갑: 인간은 자신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동물과 관련한 의무도 갖는다.
- ③ 을: 동물의 고통과 인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 ④ 을: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인간에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로 확대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생명체는 종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66][24 ebs 수특]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원숭이의 겉모습과 이성이 없는 어떤 다른 동물의 모양과 기관을 가지는 그런 종류의 기계가 있다면, 이 기계가 그러한 동물과 어떤 점에서나 동일한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분간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우리에게 없다.

을: 삶의 주체인 동물의 내재적 가치보다 당신이나 나의 내재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성적인 근거는 없다.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인간. 동물 할 것 없이 같은 정도의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병: 동물이, 폭군이 아닌 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에게 고통을 주고도 보상 없이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나)

- ① A와 F: 갑각의 유무가 도덕적 지위의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임을 간과한다.
- ② B: 이성적 존재와 도덕 무능력자의 내재적 가치가 동등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와 E: 동물 학대가 부당한 이유가 인간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임을 간과한다.
- ④ D: 어떤 개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가 이성이 아님을 간과한다.
- ⑤ E: 동물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음을 간과한다.

2-3

성 · 사랑의 윤리(수특 5강)

zola 문제

67][18 ebs 수특]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로 모르고 지냈던 두 사람이 하나가 된 순간은 유쾌한 경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이 경험은 성적 매력에 의해 결합될 때 더욱 촉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사랑은 그 성격상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점차 친숙해지면 권태감으로 인해 최초의 흥분은 흔적조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포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삶이 하나의 기술이듯 사랑도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의 능동적인 성격은, 사랑이 모든 형태의 사랑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보호, 책임, 존경, 지식으로, 우리는 성숙한 사람에게서 그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① 사랑의 본질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 ② 사랑은 두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다.
- ③ 사랑은 상대에게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 ④ 사랑은 나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타자를 나의 입장에서 볼 때 가능하다.
- ⑤ 사랑의 실패 원인을 알고 그 의미를 배울 때 사랑의 실패 극복이 가능하다.

68][16 ebs 수특 응용, 주관식] (가)의 입장을 토대로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

(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란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느끼는 일체감이란 있는 그대로의 그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 그를 나에게 필요한 이용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다.

(나)

- ① 상대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 ②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소유하지 않는 것이지.
- ③ 상대와 자기가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남는 것이지.
- ④ 상대를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것이지.
- ⑤ 상대의 성장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지.

69][17 ebs 수특 응용] 서양 사상이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의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의 욕구에 대해 배려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경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문제 상황>

A는 최근 여자 친구의 마음이 변한 것 같아 매일 50건 이상의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zola 보내고 있다. 여자 친구는 A에게 그만둘 것으로 zola 부탁했지만, A는 여자 친구와의 관계 유지를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러한 행동을 zola 계속하려 한다.

<보기>

- ㄱ.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라.
- ㄴ. 좋아하는 사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라.
- ㄷ. 좋아하는 사람의 고유한 삶의 영역을 존중하라.
- ㄹ.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 ㅁ. 감방 zola 가라!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⑥ ㅁ

70][21 ebs 수특, 주관식] 고르세용~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타인에게 베푸는 것 또는 주는 것으로써 특징을 보인다. 또한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기본 요소가 발휘되어야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 네 가지 사랑의 기본 요소들은 서로 개념적으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성숙한 사랑을 성취할 수 있다. 사랑만이 인간 존재에 대한 비밀을 알아가는 올바른 길이고,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

보기

- ㄱ. 사랑은 어머니와 태아와 같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다.
- ㄴ.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 가는 합일의 과정이다.
- ㄷ. 사랑의 대상을 존중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 ㄹ.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상대방의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


71][24 ebs 수특, 주관식] 고르세용~

성숙한 사랑은 개인의 완전성과 개성을 보전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이다. 사랑은 인간 내부에 있는 능동적인 힘이다. 즉, 인간을 동료로부터 격리시키는 장벽을 파괴하는 힘이며 타인과 결합시키는 힘이다. 그래서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은 아니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면, 사랑은 근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말로 설명된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주는 것의 요소 이외에도 모든 형태의 사랑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어떤 기본적 요소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명확해진다. 이것들은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이다.

보기

- ㄱ. 사랑은 능동적인 감정의 활동으로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다.
- ㄴ. 사랑에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 ㄷ. 사랑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복종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다.
- ㄹ. 사랑이란 주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생명에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 것이다.

72][22 ebs 수특] 문제 푸는 방식 알죠? 적절한 것은?

<p>요즘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성차별의 문제점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p>  <p>1</p>	<p>남성에 의한 여성의 예속은 여성 개인에 대한 불공평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p>  <p>2</p>
<p>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인류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p>  <p>3</p>	<p>여성의 재능 활용 기회를 막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실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사회적 유용성이 증진됩니다.</p>  <p>4</p>

- ①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동등한 존재이다.
- ② 교육의 기회는 남녀의 본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 ③ 양성평등의 실현은 인류 전체의 유용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 ④ 여성은 생물학적인 이유로 남성보다 분별력이 열등할 수밖에 없다.
- ⑤ 여성은 남성에 대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제도적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73][22 ebs 수특] 적절한 것은?

우리는 사랑에 대해 감상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인격을 발달시키고,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사랑이 기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은 수동적 복종이나 생물학적인 합일이 아니라, 개인의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입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능동적인 힘이며, 인간이 타인과 분리되는 벽을 허물어 버리고 타인과 결합시키는 힘입니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가 되지 만 동시에 따로 남는다는 역설이 성립합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입니다. 사랑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나의 생동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① 사랑하는 상대를 구속하지 않고 존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② 상대의 요청에 따라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다.
- ③ 사랑은 상대와 하나가 되기 위해 자신의 독립성을 버리는 것이다.
- ④ 사랑은 능동적으로 상대를 통제하여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것이다.
- ⑤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를 위한 선을 고양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

74)[20 ebs 수특, 주관식] 고르셈.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이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준다고 하는 요소 외에도 언제나 모든 사랑의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이해 등이다. 이것들은 성숙한 인간, 곧 자신의 힘을 생산적으로 발휘하고 스스로 일한 결과만을 차지하려고 하고 전지전능이라는 자아도취적 꿈을 포기하고 오직 순수한 생산적 활동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내적 힘에 바탕을 둔 겸손을 터득한 사람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일련의 태도이다.

보기

- ㄱ. 사랑은 상대방을 나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보호하는 것인가?
- ㄴ. 사랑은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능동적 활동인가?
- ㄷ. 사랑의 자발성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희생으로 완성되는가?
- ㄹ.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것인가?

75)[25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준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이다. 준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물질적 영역이 아니라 인간적 영역에 있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인간적 관계로 생각해야 한다. 자기 자신 속에 살아 있는 것을 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유머, 자신의 슬픔과 같이 자기 자신 속에 살아 있는 것의 모든 표현과 현시(顯示)를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줌으로써 그는 타인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함으로써 타인의 생동감을 고양시킨다. 그는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주는 것 자체가 절묘한 기쁨이다.

- ① 사랑은 서로의 개성을 긍정하는 조화를 지향한다.
- ② 사랑은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해야 실현된다.
- ③ 사랑은 자신과 상대방의 생동감을 함께 고양하는 활동이다.
- ④ 사랑은 상대를 위한 물질적·정신적 희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 ⑤ 사랑은 상대에게 정서적으로 예측되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다.

2-4

결혼과 가족의 윤리(수특 5강)

☞ Zola Guide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통 윤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하다. 학습이 소홀해지면 틀리기 쉽다.

zola 문제

76)[18 ebs 수특] 유교의 입장에서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은/는 두 성(性)이 합하여, 위로는 종묘를 섬겨 제사의 주인이 되며,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계승시켜 조상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을 서약하는 의식이다. 따라서 군자는 이를 중히 여겨 감히 소홀히 하지 않는다.

- ① 부모와 사회의 인정을 받아서 한 가정을 꾸리는 의식이다.
- ② 이해타산적 합리성에 기초해 서로 함께하겠다는 서약이다.
- ③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을 다하고 의리를 지키겠다는 서약이다.
- ④ 두 가문의 남녀가 결합하여 상호 헌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식이다.
- ⑤ 위로는 조상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를 낳아 가계를 잇겠다는 서약이다.

77)[25 ebs 수특]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남편과 부인 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 간에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

(보기)

- ㄱ. 부자(父子)간의 효는 사회적 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
- ㄴ. 부부간에 서로 손님처럼 대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 ㄷ. 가족은 서로 살피 친애(親愛)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8)[21 ebs 수특, 주관식] 있는 대로 고르세용~

- (가)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는다. 움직임이 극에 이르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에서 음이 생성된다. 고요함이 극에 이르면 다시 움직임이 시작된다.
- (나) 남녀 간에 분별이 있는 다음, ㉠ 간에 의리가 있고, ㉡ 간에 의리가 있는 다음, 부자간에 친애함이 있고, 부자간에 친애함이 있는 다음, 군신 간의 바른 도리가 있게 된다.

보기

- ㄱ. 동기간으로 서로 사양하며 지내고 공경해야 하는 관계이다.
- ㄴ. 혈연적 관계로 가족 공동체와 신의를 지켜야 하는 관계이다.
- ㄷ.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는 상경여빈을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ㄹ.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백년해로를 지향해야 하는 관계이다.

79)[22 ebs 수특, 주관식] 다음 사상의 관점에서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
셈.

-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운데, 형은 형답고 아우는 아우다운데, 남편은 남편답고 아
내는 아내다운데 가정의 법도가 바르게 될 것이니, 가정을 바르게 하면 천하가 안정된다.
- ㉠은/는 인륜(人倫)의 시작이므로 지극히 친밀한 사이지만 지극히 조심해야 할 관
계이기도 하다.
- ㉡은/는 나와 더불어 한 몸과 같은 존재이며, 사람의 손과 발처럼 서로 아끼고 도
와주는 수족(手足)의 관계이다.

보기

- ㄱ. ㉠은 혈연관계로 가정 내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다.
- ㄴ. ㉡은 부모에 대한 효(孝)를 함께 실천해야 하는 동기간이다.
- ㄷ. ㉠은 ㉡과 달리 서로에 대한 정조(貞操)를 지켜야 하는 동반자이다.
- ㄹ. ㉡은 ㉠과 달리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이다.

80)[24 ebs 수특, 주관식] 다 골라 주세용~

○○에게

듣건대 공이 금슬이 좋지 않아 탄식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러한 불행이 있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보면
세상에 이런 걱정이 있는 자가 적지 않으니 그 다양한 유형을 다 들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공이 반성하여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노력하여 잘 처신하여 ㉠의 도리를 잃지 않는다면 큰 인륜이 무너지
는 데 이르지 않을 것이며, 자신도 인정 없이 구는 처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동안 몹시 괴
롭고 심란하여 번민을 견디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어찌 감정대로 하여 큰 인륜을 소홀히 해서 홀로 사는
어머니께 근심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공은 마땅히 깊이 생각해서 경계하고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이 문제
에 대해 끝까지 시정하지 않는다면 어찌 학문한다 하며 어찌 실천한다 하겠습니까.

보기

- ㄱ. 서로 간의 친륜으로 맺어진 운명적 관계이다.
- ㄴ. 서로를 공경하며 손님을 대하듯 해야 하는 관계이다.
- ㄷ. 서로 친밀하며 삶의 동반자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 ㄹ. 서로의 역할에 따라 인간의 도리를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3-1

직업과 청렴의 윤리(수특 6강)

zola 문제

81)[20 ebs 수특, 주관식]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골라.

갑: 군자는 작은 일은 잘 못해도 큰일은 맡아 할 수 있고,
소인은 큰일은 감당 못해도 작은 일은 잘할 수 있다. 임
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
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을: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뽑아
쓰고, 덕이 없고 무능한 사람은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그만두게 해야 한다. 힘든 일은 누구나 싫어하고 이익
은 누구나 좋아하므로 예로써 일을 나누어야 다툼이 없
을 것이다.

보기

- ㄱ. 주어진 사회적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 ㄴ. 누구에게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 ㄷ. 개인의 덕에 따른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ㄹ. 군자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에 통달해야 한다.

82)[25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든 일에 신의 소명(召命)이 바른 활동의 시작이요 기초라
는 사실을 알면 그것으로 족하다. 신의 소명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정도(正道)를 따라 신 앞에 의무를 다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도 때로는 무언가 칭찬받을 만하게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행하
는 일은 신의 보좌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 ① 내세의 구원은 직업적 성공에 대한 신의 축복이다.
- ② 신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삶의 양식을 지정한다.
- ③ 근면한 직업 활동을 통해 신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 ④ 천하게 여기는 직업 활동도 신이 보기에 귀할 수 있다.
- ⑤ 각 사람은 자기의 소명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
야 한다.

83)[20 ebs 수특, 주관식] 다음은 서양 사상가들과의 가상 인터뷰이다.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골라.

사회자: 우리는 인생의 상당 부분을 일과 직업 생활을 하며 보냅니다. 우리는 일과 직업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갑: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온전한 삶이란 노동과 여가가 분리된 삶이다. 인간은 여가를 얻기 위해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신과 인생에 대해 관조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육체노동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낭용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받은 벌입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명상과 신을 향한 기도가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을: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들을 구분해 놓으셨으므로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두셨습니다. 그와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각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직업을 신께서 정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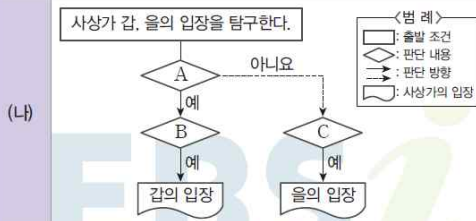
보기

- ㄱ. 갑: 세속적인 일의 유일한 기능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 ㄴ. 을: 근면 성실한 직업 생활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 ㄷ. 을: 일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 ㄹ. 갑, 을: 육체노동은 신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84)[21 ebs 수특, 주관식] 있는 대로 고르세요.

갑: 수호자는 마치 야영하는 군인들처럼 공동으로 식사하고 생활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 안의 신성한 금은 인간의 소유물과 섞음으로써 더럽혀서는 안 된다. 세상의 금을 멀리함으로써 자신도 구하고 나라도 구원하게 된다.

을: 목민관은 술과 여색을 끊고, 노랫소리와 음악을 물리치며, 공손하고 단정하고 엄숙하기를 큰 제사를 받드는 것처럼 해야 한다. 감히 놀고 즐기는 것으로써 다스림을 거칠고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목민관의 본연의 의무는 청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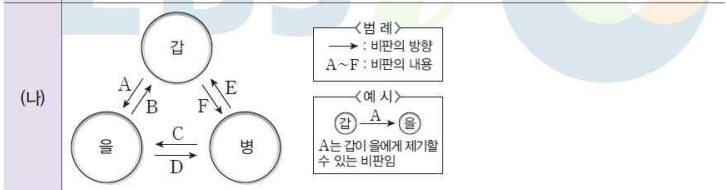


보기

- ㄱ. A: 각자의 사회적 역할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는가?
- ㄴ. A: 국가 운영을 맡은 자에게 재산 소유는 금지되어야 하는가?
- ㄷ. B: 수호자와 생산자는 국가 통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 ㄹ. C: 공직자가 자애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렴하고 절약해야 하는가?

85)[22 ebs 수특] 적절한 것은?

갑: 농부는 밭일에, 상인은 장사에, 목수는 그릇 만드는 일에 정통하지만 수장은 될 수 없다. 오직 예에 정통한 사람만이 수장이 될 수 있다.
 을: 신은 여러 가지 삶의 양식들을 구분함으로써 사람이 각자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주었다. 신은 그런 삶의 양식들을 소명(召命)이라 하였다.
 병: 사람은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그러한 선한 마음은 직업 활동을 통해 확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 ① A: 노동은 신성하며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음을 간과한다.
- ② B, D: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직업의 목적이 아님을 간과한다.
- ④ E: 사회적 신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정해져야 함을 간과한다.
- ⑤ F: 백성은 생계가 안정되어야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86)[17 ebs 수특, 주관식]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갑: 수호자들에게서 변변찮은 자손이 생길 경우 다른 사람들 사이로 보내져야 하고 다른 집단에게서 우수한 자손이 생길 경우 수호자들 사이로 보내져야 한다. 이것이 의도한 바는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각자가 한 가지 일에 종사함으로써 여럿이 아닌 하나가 되도록 하고, 나라 전체가 자연적으로 여럿이 아닌 ‘한 나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을: 분업을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4,800개의 핀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각자 독립적으로 혼자 일한다면 틀림없이 하루에 20개의 핀은커녕 한 개의 핀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 (중략)... 사회가 미개한 상태에서는 한 사람의 작업인 것이 진보된 상태에서는 여러 사람의 작업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개량된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농부는 농부 이외의 다른 것일 수 없고, 제조업자는 제조업자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닌 것이 통례이다.

병: 노동이 분화되자 각 개인은 하나의 일정한 배타적 영역을 갖게 되었다. 그는 한 사람의 사냥꾼, 한 사람의 양치기, 한 사람의 어부, 한 사람의 비평가이며, 생계 수단을 잃지 않고자 하는 한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아무도 배타적 영역을 갖지 않고 각자가 원하는 분야에서 스스로를 도야시킬 수 있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아침에는 사냥을, 오후에는 낚시를, 저녁에는 목축을, 밤에는 비판을 할 수 있다.

보기

- ㄱ. 갑은 각자의 능력과 성향에 따라 직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ㄴ. 을은 생산 과정에서의 분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다.
- ㄷ. 병은 사회 통합을 위해 각자는 하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병과 달리 분업의 원리를 따라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본다.

87)[25 ebs 수특, 주관식]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인간은 동물과 달리 육구 충족을 위해 합목적적 활동 안에서 노동 수단을 통해 자연 등의 노동 대상을 효율적으로 가공하고 변형한다. 동시에 인간은 노동 과정에서 자신의 본질도 변화시켜, 그 본질에 잠재된 능력을 발전시킨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는 부를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그의 생산의 힘과 범위가 증대될수록 더 가난해진다. 노동자가 상품을 더 많이 창조할 수록 그는 더 값싼 상품이 된다.

(보기)

- ㄱ.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 ㄴ. 생산 수단의 사유화를 철폐함으로써 인간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
- ㄷ.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이다.
- ㄹ. 모든 구성원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가 이상 사회이다.

88)[19 ebs 수특] 틀린 것은?

프로테스탄트들은 욕욕과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신을 위해서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동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부(富)는 게으른 휴식과 죄 많은 삶의 향락에 대한 유혹으로서 위협시된 것이며, 부의 추구도 나중에 근심 없이 살기 위한 것일 경우에만 위협시된 것이었다. 반면에 직업 의무의 행사로서의 부의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명령된 것이었으며, 따라서 노동 능력이 있는 자가 구걸하는 것은 나태이므로 죄일 뿐 아니라 이웃 사랑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중략)**... 부단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직업 노동을 단적인 최고의 금욕적 수단이자 동시에 거듭난 자와 그 신앙의 진실성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명이라고 간주한 종교적 평가는 우리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부르는 생활관의 확장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아닐 수 없다.

- ① 프로테스탄트들은 재산 낭비적인 향락과 사치재 소비를 반대했다.
- ② 프로테스탄트들은 직업을 신이 명령을 내린 신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 ③ 프로테스탄트들은 금욕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이익 추구 자체를 죄악으로 간주했다.
- ④ 신의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직업 노동은 정당화될 수 있었다.
- ⑤ 절제와 금욕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윤리는 자본주의 발달에 원동력이 되었다.

89)[24 ebs 수특, 주관식]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그뿐!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이다. 즉, 노동자가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타자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소외된 노동은 인간의 삶을 생활 수단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인간에게 고유한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킨다. 소외된 노동은 결국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를 일으킨다. 이러한 소외의 근본 원인은 결국 사적 소유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 보기 •

- ㄱ. 생산 수단이 공유될 때 노동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
- ㄴ. 임금 노동자가 자율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업이 필요하다.
- ㄷ. 능력에 따라 분배받고 필요에 따라 일하는 사회에서 노동 소외가 극복된다.
- ㄹ.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생산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을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해 낸다.

90)[24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청교도들이 삶의 구석구석에 작용하고 있다고 본 신이 그의 신도들 각각에게 하나의 이윤의 기회를 준다면, 그것은 신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자는 그 기회를 사용하여 그러한 부르심에 따라야만 한다. 욕욕과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신을 위해서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동해도 괜찮다. 이렇게 부는 게으른 휴식과 죄 많은 삶의 향락에 대한 유혹으로서 위협시된 것이며, 부의 추구도 나중에 근심 없이 안일하게 살기 위한 것일 경우에만 위협시된 것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청교도들은 직업 활동을 신의 소명을 따르는 일로 이해하였다.		V			V	V
청교도들은 노동 능력이 있는 자가 구걸하는 것을 죄로 보았다.		V	V		V	
청교도들은 직업 의무의 행사로서 부의 추구를 비도덕적 행위로 보았다.				V	V	V
청교도들은 신이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을 지시해도 언제나 적은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V	V		V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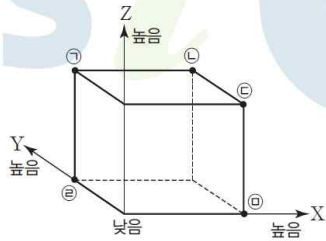
공직, 기업, 전문직 윤리(수특 6강)

zola 풀이!

91)[20 ebs 수특] 갑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 을 사상가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에서 골라!

갑: 자유 경제 체제에서 경영자들은 오직 기업의 소유주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은 일반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 즉 속임수나 기만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을: 기업은 환경 보호, 사회 복지 공헌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갖게 하여 기업의 이윤 추구에 도움을 준다. 생산품의 안전성 맥락에서, 회사가 받아들인 윤리 규칙에 의해 경제적 효율성은 훨씬 더 향상된다.



X: 기업의 책임을 이윤 추구에 한정시키는 정도
 Y: 기업의 공익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정도
 Z: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

92)[15 ebs 수특]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훌륭한 목민관(牧民官)이 되려면 반드시 자애(慈愛)로워야 하고, 자애로우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려면 반드시 절용(節用)해야 한다. 그러므로 절용이야말로 목민관이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한 고을을 얻으면 건방져지고 사치스럽게 되어 절약하지 않는다. 재물을 함부로 써서 빛이 날로 불어나면 반드시 욕심을 부리게 된다. 욕심을 부리면 아전들과 짜고 일을 꾸며 이익을 나눠 먹게 되고, 이익을 나눠 먹다 보면 백성들의 고혈(膏血)을 짜게 된다.

< 보기 >

- ㄱ. 목민관은 백성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
- ㄴ. 목민관은 사치하지 않고 검소한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 ㄷ. 목민관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私益)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 ㄹ. 목민관은 자기 수양을 통해 형이상(形而上)의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93)[19 ebs 수특]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최근 사회 과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리적 자본 혹은 인적 자본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듯이 사회적 자본 역시 개인과 집단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자본이 물리적 사물, 인적 자본이 개인의 특성을 가리키듯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은 몇몇 사람들이 시민적 덕성이라고 부르던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기

- ㄱ. 물리적 자본은 인적 자본과 달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
- ㄴ.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금전적 자본으로 요약된다.
- ㄷ. 시민적 덕성은 사회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한다.
- ㄹ.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은 개인과 집단의 생산성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94)[19 ebs 수특]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대답할 때, (나)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몽땅 골라.

(가) 갑: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각 주체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
 을: 모든 존재는 이것이 생(生)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滅)하면 저것이 멸한다.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因)과 조건(緣)이 상호 관계하여 성립된다.



- ① 갑: 모두가 평등한 주체로서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 ② 갑: 공동선이 아닌 개인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 ③ 을: 내 업무와 타인과의 연계성을 자각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④ 을: 자신의 직업 생활에 전념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⑤ 갑, 을: 자연의 순리를 알고 어떤 일도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95)[22 ebs 수특] 옳지 않은 것은?

-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곡식과 옷감을 생산하여 목민관을 섬기고, 수레와 수레꾼을 보내어 목민관을 전송하고 환영하며,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목민관을 살찌우고 있으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하여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 청렴함은 청하에서 '큰 장사'이다. 그러므로 크게 장사하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 무엇 때문인가? 재물이란 우리 사람들이 크게 욕심내는 바이다. 그러나 재물보다 더 크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므로 재물을 버리거나 취하지 않기도 한다.

- ① 공직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공직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 ③ 공직자는 염치(廉恥)와 탐욕(貪慾)을 지니지 않아야 한다.
- ④ 공직자는 견리사의(見利思義)의 자세를 지니고 봉사해야 한다.
- ⑤ 공직자는 자신의 지위에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96)[24 ebs 수특]

다음에 주장한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 등의 사회 조직의 속성을 지칭한다.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사용하면 그 공급이 많아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고갈되는 '도덕적 자원'의 속성을 가진다. 사회적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자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유재의 성격은 지니는 전통적인 자본과 달리,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공공 문제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고, 시민 결사체들을 통해 의견 대립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킨다.

• 보기 •

- ㄱ. 시민적 협력은 구성원들의 상호 이익에 기초한다.
- ㄴ.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는 수평적인 상호 작용을 대표한다.
- ㄷ.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축적될수록 사회적 효율성은 더 쉽게 향상된다.
- ㄹ. 사회적 자본은 상호 의견 대립 등의 사회적 갈등이 사라져야 형성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97)[25 ebs 수특] 고르세요~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최상은 봉급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고 남은 것을 가져가지 않으며,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한 필의 말로 조출하게 가는 것이니, 이것이 아주 옛날의 청렴한 관리입니다. 그 다음은 봉급 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고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을 집으로 보내는 것이니, 이것이 조금 옛날의 청렴한 관리입니다. 최하는 무릇 규례(規例)가 된 것이라면 비록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지만, 규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먼저 시작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오늘날의 청렴한 관리입니다. 최상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다음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하의 경우는 옛날 같으면 형벌에 처했을 것입니다.



< 보기 >

- ㄱ. 목민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으로 재물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 ㄴ. 청렴은 목민관으로서 행할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 ㄷ. 부정한 목민관이 되는 까닭은 지혜가 부족하고 사려가 얕기 때문이다.
- ㄹ.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목민관은 덕이 아니라 법령에 따르고자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98)[25 ebs 수특]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기업이 합법적으로 주주들을 위해 되도록 돈을 많이 버는 것 말고 다른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현상보다 자유 사회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경향은 드물다. 만약 기업가들이 주주의 피고용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되어 버린다면, 그들은 의사 결정권을 빼앗길 것이다.</p> <p>을: 기업이 생산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구매자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윤 극대화라는 단순한 규칙이 사회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 경우 기업이 윤리적 이든 도덕적이든 법률적이든 무언가 사회적 책임감을 갖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다.</p>
(나)	

- ① A: 기업은 법을 준수하며 되도록 많은 이윤을 창출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A: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지라도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B: 기업에 자선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 경제의 본질에 위배됨을 간과한다.
- ④ B: 기업의 주목적이 주주의 이익 증진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임을 간과한다.
- ⑤ B: 기업이 공익적 가치 실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간과한다.

3-3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니부어) (수특 7강)

zola 문제

99)[14 ebs 수특] 다음 글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사람들의 이성적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감을 갖게 하며, 교육을 통하여 정의감이 길러지는 가운데 사람들을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결국, 사람들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회 집단의 경우,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다. …(중략)…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고, 개인의 차원에서는 이타성이다. 사회는 비록 불가피하게 비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 ①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구별해서는 안 된다.
- ② 개인 이기주의가 집단 이기주의보다 극복하기 어렵다.
- ③ 사회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회복으로 충분히 해결된다.
- ④ 개인의 이성적 통찰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 ⑤ 사회 집단은 개인보다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100)[15 ebs 수특] ㉠에 들어갈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갑: 인간의 이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의지를 갖게 하고 이러한 선의지는 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사회의 부정성은 개개인의 선의지를 고취하여 이기적 충동을 극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을: 아닙니다. 저와 같은 입장을 지닌 어느 서양 사상가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이행할수록 이기적 충동에 비해 이성과 선의지의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개인의 선의지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강제력에 의한 방법의 사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당신의 주장이 ㉠ 고 생각합니다.

<보기>

- ㄱ.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 의사 결정을 이끌어 사회 정의 달성에 기여함을 무시하고 있다
- ㄴ.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만으로는 집단 간의 갈등을 설명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 ㄷ. 인간의 이성은 인간 존재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이익에 의해 타락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ㄹ. 인간의 이성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여 세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함을 간과하고 있다

101)[18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을 골라!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되기 힘든 지속적인 갈등이 발견된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강제력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얻어 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결국에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잃기도 하고 찾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갈등도 절대적이지 않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적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V			V	V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자가 지닌 독특한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V		V	V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V		V	V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방법은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 배타적이며 개인의 도덕성과 조화될 수 없다.			V	V		V

102)[19 ebs 수특] 다음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이기심, 반항, 강제력 등과 같이 도덕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얻어 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결국에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잃기도 찾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갈등도 절대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쉽게 조화되지도 않는다.

- ①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동일한가?
- ②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 ③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의 도덕성을 결정하는가?
- ④ 개인의 선의지는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가?
- ⑤ 개인이 모두 도덕적이면 사회 갈등이 해결되는가?

103)[20 ebs 수특, 주관식]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모든 인간의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 <보기>

- ㄱ. 집단들 간의 문제는 개인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 ㄴ. 집단은 개인에 비해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 ㄷ. 집단의 도덕성은 합리성과 선의지를 통해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 ㄹ. 집단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사용될 수 있다.

104)[22 ebs 수특] 적절한 것은?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계반 문제를 현실주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되기 힘든 지속적인 갈등이 발견된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개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잃기도 찾기도 하면서 스스로 삶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갈등도 절대적이지 않다.

<문제 상황>

최근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사회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책 결정자 A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①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합리적 수단을 동원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② 사회 정의를 위해 집단은 기꺼이 자기 이익을 포기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③ 정의는 합리적 개인들의 자발적인 조정으로만 실현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④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강제력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⑤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 승인하지 않은 방법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세요.

105)[21 ebs 수특] 옳지 않은 것은?

자비심과 사회적 선의지는 결코 순수하거나 강력하지 않다. 우리 자신의 권리나 욕망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욕망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능력도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가장 친밀한 사회 집단보다 규모가 큰 사회적 협력 모두는 일정한 강제성을 요구한다. 어떠한 국가도 순전히 강제성에 의해서만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강제성 없이 국가를 보존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 ① 인간 지성과 선의지가 증가하면 집단 간의 영구적인 힘의 균등이 실현된다.
- ② 개인의 도덕적 차이는 사회 집단의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③ 사회 정의 달성을 위한 강제적 요인은 윤리적 요인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 ④ 비도덕적이고 비합리적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 ⑤ 사회는 집단의 이기심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적 강제력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

106)[24 ebs 수특, 주관식] 적절한 것을 모두 다 몽땅 골라 주세요!

- 이기적 충동이 사회적 충동에 의해 꺾이게 되면, 그것은 사회적 충동 속으로 흡수되어 한 인간이 자신의 공동체에 바치는 헌신성은 이타주의의 표현임과 동시에 변형된 이기주의의 표현이 된다.
- 애국심이란 더 저급한 충성심이나 지역적 충성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형태의 이타주의이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 진명에서 보면 한갓 이기주의의 또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 보기 •

- ㄱ. 개인과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았을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 ㄴ. 집단은 개인에 비해 이기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 ㄷ. 애국심이 각 개인의 희생적인 이타심을 국가의 이기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
- ㄹ. 인간의 이성적 능력은 사회의 집합적 충동 간의 갈등을 막을 만큼 충분한 억제력을 반드시 제공한다.

107)[25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비심과 사회적 선의지는 결코 순수하거나 강력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권리나 욕망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욕망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능력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가장 친밀한 사회 집단보다 규모가 큰 사회적 협력은 모두 일정한 강제성을 요구한다. 어떠한 국가도 강제성 없이 국가를 보존할 수는 없다. 또한 정치는 인간 생활의 윤리적 요인과 강제적 요인이 상호 침투하여 잠정적이고 불안정한 타협을 이루는 영역이다.

< 보기 >

- ㄱ. 사회적 갈등의 원천은 인간의 무지와 이기심이다.
- ㄴ. 인간 사회에 항구적인 평화와 동포애는 실현될 수 있다.
- ㄷ. 사회적 강제력은 언제나 선의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 ㄹ.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민주적 방법에는 강제적 요인이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4

사회정의의 분류 및 아리스토텔레스(수특 7강)

108)[16 ebs 수특] 다음은 어느 고대 서양 사상가의 정의론을 요약한 것이다. ㉠과 ㉡의 예로 적절한 것은?

특수적 정의의 하나로 ㉠ 이것은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나눌 수 있는 명예 혹은 부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의 분배와 관련된 것으로 각 개인의 가치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다. ㉡ 다른 하나는, 교섭에 있어서의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앞의 것과는 달리 산술적 비례에 의한 동등성을 추구한다.

	㉠	㉡
①	손해를 입힌 만큼의 배상을 한다.	공공선을 위해 제정된 법을 지킨다.
②	공공선을 위해 제정된 법을 지킨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③	자신의 공적에 따라 지위를 부여받는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물건을 서로 교환한다.
④	자신의 공적에 따라 지위를 부여받는다.	손해를 입힌 만큼의 배상을 한다.
⑤	동일한 가치를 지닌 물건을 서로 교환한다.	자신의 공적에 따라 지위를 부여받는다.

109)[18 ebs 수특]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람들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분배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분배 방식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도덕의식에 부합한다. 반면에 업적에 따른 분배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이다. 업적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업적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을 분배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에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시할 경우 ㉠ 는 우려를 제기한다.

- ① 과열 경쟁을 초래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생산 의욕을 저하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
- ③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 ④ 빈부 격차의 심화를 초래하여 사회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킨다
- ⑤ 선천적인 요소가 아니라 후천적인 요소만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

110)[20 ebs 수특] 그림은 수업 시간에 사용된 판서 자료이다. 고대 서양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 정의의 의미: ㉠

- ㉡ : 공동선과 덕을 장려하는 사회 규범을 지키는 것
- ㉢ :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가 있음
- ㉣ : 명예, 금전과 같은 가치의 분배와 관련된 것
- ㉤ : 사람들 간의 상호 교섭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

- ① ㉠은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게 하고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성품이다.
- ② ㉡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려는 포괄적인 덕이다.
- ③ ㉢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 ④ ㉣은 당사자들이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여 분배해야 옳바른 것이다.
- ⑤ ㉤은 이득과 손실 사이의 중용(中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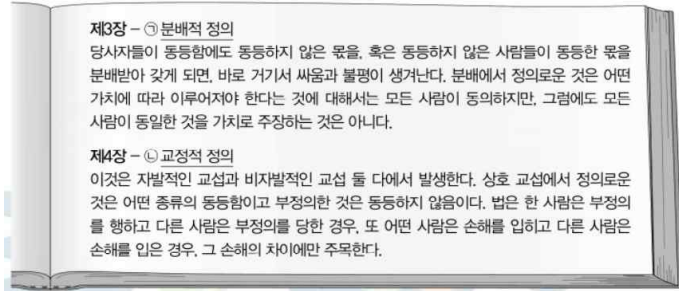
111)[22 ebs 수특] 옳지 않은 것은?

정의란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하고, 옳게 행동하게 하며,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성품이다. 정의롭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 정의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 법을 지키지 않거나 욕심이 많고, 불공정한 사람은 모두 정의롭지 못하다.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는 행위는 정의롭다. 정의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덕이며, 모든 덕 가운데 가장 크다. 정의의 영역에는 모든 덕이 다 들어 있다. 정의의 덕이 완전한 까닭은 그 덕을 가진 사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웃을 위해서도 그것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각자는 자신의 정당한 몫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타인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
- ③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탁월성을 발휘해야 한다.
- ④ 분배에서 산술적 비례를 따르는 동등함을 추구해야 한다.
- ⑤ 부와 명예는 각 사람의 가치에 따라 분배되어야 정의롭다.

112)[24 ebs 수특]

그림은 어떤 사상가의 책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에 대한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재화와 권력에 대한 올바른 분배는 기하학적 비례에 근거해야 한다.
- ② ㉠: 분배는 어떤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므로 모든 사람은 동일한 것을 가치로 주장한다.
- ③ ㉡: 거래에서 올바름이란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 ④ ㉡: 법은 손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은 차이에만 주목하여 당사자들을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 ⑤ ㉠과 ㉡: 동등함은 정의로운 것이고, 동등하지 않음은 부정의한 것이다.

3-5

분배 정의 사상가 모음(수특 7강)

☛ Zola Guide 윤사와 중복되는데, 윤사보다 어렵기도 함. 이 주제가 진짜 킬러임.

113)[25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소유 권리에 의거한 견해를 통상적 형식으로 제시하면, '각 사람이 하고자 선택하는 바에 따라 각자로부터 각 사람에게, 그가 그 자신을 위해 만든 것 그리고 타인들이 그를 위해 하기를 선택하는 바의 것, 그리고 그들에게 이전에 주어졌으나 아직 소비되지 않았던 것 중에서 또는 양도되지 않은 것 중에서 그들이 그에게 주길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이다. 이를 간략한 어구로 표현하면 '그들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각자로부터, 그들이 선택된 바에 따라 각자에게'이다.

(보기)

- ㄱ. 분배 정의는 현재 재화가 분배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 ㄴ. 각 사람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그 사회 전체의 분배도 정당하다.
- ㄷ. 재분배 행위를 필연적으로 요청하는 정형적 분배 원칙은 소유권을 침해한다.
- ㄹ. 정당한 소유 권리는 취득의 원칙과 이전의 원칙에 의거하여 각자에게 부여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14)[16 ebs 수특, 주관식] 다음 사상가가 강조하는 사회 정의의 역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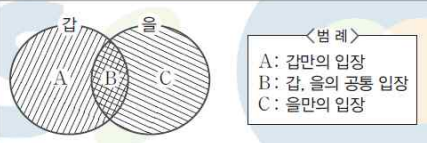
- *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 * 사람들은 사회 협동체를 통해서 모두가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큰 몫을 원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중략)… 이들의 분배를 결정해 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들의 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 사회 정의의 원칙이다.

<보기>

- ㄱ. 여러 사회 제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 ㄴ. 효율성이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게 한다.
- ㄷ. 사람들이 공정한 상황에서 상호 간 협력을 도모하게 한다.
- ㄹ.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한다.

115[19 ebs 수특] 알아서 골라줘! 제발~~


(가) 갑: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모든 행위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다.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클 때 공리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을: 상호 무관심한 사람들이 무지의 배일 하에서 합의를 통해 정의를 도출하는 상황에서 각자는 자신이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의 원리에 합의하게 된다.

(나) 

- ① A: 균등 분배를 통해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 ② A: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분배는 결과와 관계없이 정의롭다.
- ③ B: 사회 극빈층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은 정의롭다.
- ④ C: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 ⑤ C: 사회적·경제적 재화의 불균등한 분배는 정당화될 수 없다.

116[18 ebs 수특, 주관식]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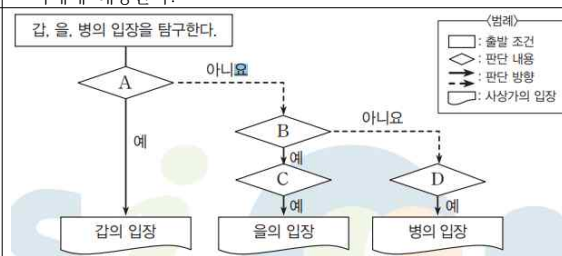
(가) 갑: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이한 두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
을: 우리의 경우, 모든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배적 정의와 완결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한 분배가 정의로운 충분조건은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한 분배는, 이것이 다른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했을 때 정의롭다.

(나) 

- <보기>
- ㄱ. A: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 ㄴ. B: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 ㄷ. B: 소득의 분배는 자유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ㄹ. C: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분배 과정을 주도하는 국가가 필요하다.

117[18 ebs 수특, 주관식]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갑: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의 일반적인 개요를 말하자면,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을: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병: 분배에서 옳음은 동등한 사람에게 동등한 몫을 분배하는 것이다. 분배에서 옳음은 일종의 비례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례는 비율과 비율의 균등성을 의미하며 기하학적 비례에 해당한다.

(나) 

- <보기>
- ㄱ. A :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승인될 수 있는가?
 - ㄴ. B : 사회적 효용을 위해 소수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보는가?
 - ㄷ. C :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한가?
 - ㄹ. D : 각 사람이 지닌 가치에 비례하여 재화를 분배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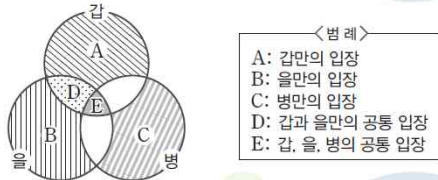
118[19 ebs 수특, 주관식, 윤사] 알아서 골라!

갑: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다. 원초적 입장이란 거기서 도달하게 되는 기본적인 합의가 공정함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최초의 상태이다.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게 될 원칙들에 합의한다.
을: 정의의 원칙은 그 자체가 다원주의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방법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들 자체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이한 이해들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필연적 산물이다.

- | 보기 |
- ㄱ. 갑은 우연성을 제거한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들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 ㄴ. 을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에 따라 분배 대상과 방법이 달라진다고 본다.
 - ㄷ. 갑은 을과 달리 사회적 기본 가치들이 모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본다.
 - ㄹ. 을은 갑과 달리 주요한 사회적 가치들과 그 의미는 사회마다 같다고 본다.

119)[19 ebs 수특, 주관식, 운사] 이것도 알아서 골라!

갑: 재산 및 소득의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을: 분배적 정의의 원리는 오직 다음과 같다. 한 분배가 정의로운 충분조건은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다.
병: 인간 사회는 중요한 점에서 분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 ① A: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B: 개인의 소유 권리는 소유물의 취득 과정과 무관하게 보장해야 한다.
- ③ C: 정의의 영역들 간의 경계를 보호하여 복합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 ④ D: 개인의 천부적 재능을 사회가 공유하는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 ⑤ E: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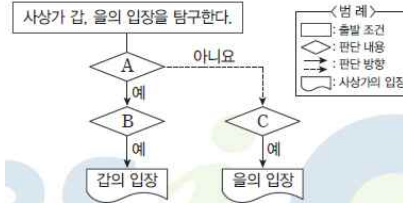
120)[20 ebs 수특, 주관식]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

갑: 모든 사람은 정치적 자유,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등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한편 재산과 소득의 분배는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직위를 개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하게 된다.
을: 한 영역 안에서 혹은 어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한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가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는 것을 복합 평등이라고 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공직에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선택될 수 있으며, 이때 두 사람은 정치 영역에서 불평등하게 된다. 그러나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공직자에게 우선적인 의료 혜택, 자녀 취학의 우선권 등과 같은 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 보기
- ㄱ. 갑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ㄴ. 갑은 사회적 약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차등 분배해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분배하는 다양한 분배 원칙이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은 옳과 달리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121)[20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다음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원칙적 입장에서 무지의 배일을 쓴 당사자들은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자신의 타고난 능력이나 가치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이로 인해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을: 자유세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물자를 손에 쥐고 있으며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 교환과 행위로부터 발생한다. 소유물에서의 정의 이론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 이는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할 것이다.



- ① A: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② A: 개인의 타고난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수립해야 하는가?
- ③ B: 선천적인 사회적 지위는 부정의하므로 제도를 통해 교정해야 하는가?
- ④ B: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 ⑤ C: 국가의 시장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122)[21 ebs 수특] 옳은 것은?

갑: 개인에 대한 생활 조건의 우연성은 부르주아의 산물 가운데 하나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다. 개별 프롤레타리아는 이 우연적인 것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공산주의 단계에서는 노동이 자기실현으로 전환되고, 단결한 개인들에 의해 총체적 생산력은 포섭된다. 이전의 역사에서는 어떤 특수한 조건이 우연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단계에서는 각 개인의 특수한 사적 생업 자체가 우연적인 것으로 된다.
을: 우연성의 영향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우연성이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라는 것에 근거한다. 그런데 개인의 자연적 자산들이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든 아니든 그 개인들은 그것들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니며, 그것들로부터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소유 권리를 지닌다. 그러한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갑은 개인의 자질이 다양하게 발휘될 때 인격적 자유가 실현된다고 본다.
- ② 을은 자연적 자산의 편향에 따른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본다.
- ③ 갑은 옳과 달리 분배의 정당성 여부는 소유 과정의 정당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개인이 자기 노동의 산물 모두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사회적 우연성이 자율적인 의지에 기인한다고 본다.

123)[22 ebs 수특, 주관식] 푸는 법 아시죠? 고르세용~

(가) 갑: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노동의 본질을 구현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을: 소유 자격의 여부는 소유에 이르는 과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소유 자격이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는 불가침의 권리가 부여된다.
 병: 정의는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나)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법 레〉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의 입장

- 보기
- ㄱ. A: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권이 폐지된 사회에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는가?
 - ㄴ. B: 재화의 취득, 양도, 교정의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을 배제해야 하는가?
 - ㄷ. C: 복지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가?
 - ㄹ. D: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분배 정책은 정의로울 수 있는가?

124)[22 ebs 수특] 옳지 않은 것은?

갑: 정의는 동등한 사람에게 동등한 몫을 분배하는 것이다. 분배에서 옳음은 일종의 비례인데 그것은 비율과 비율의 균등성을 의미한다.
 을: 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연결되므로, 구성원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병: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상황에서 함의로 도출된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공통된 정의감이 존재하며 시민적 유대와 체제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 ① 갑: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는 모두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 ② 을: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분배 정책은 정의롭다.
- ③ 병: 정의의 원칙은 가상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 ④ 갑, 을: 국가는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부정의를 교정해야 한다.
- ⑤ 을, 병: 모든 사람의 이익 증진은 분배 정의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125)[24 ebs 수특, 주관식]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됨!

(가) 갑: 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연결되므로, 구성원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을: 모든 사람은 사회의 기본 구조 내에 허용될 수 있는 불평등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한다. 차등의 원칙은 상호 이익의 원칙이다.
 병: 분배에서의 정의의 소유 권리론은 역사적이다.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이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다.

(나)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법 레〉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의 입장

- 보기
- ㄱ. A: 정의로운 분배의 결과를 규정하는 분배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가?
 - ㄴ. B: 경제적 불평등은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정당화되는가?
 - ㄷ. C: 최소 수혜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수의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정당한가?
 - ㄹ. D: 타고난 능력을 기준으로 재화를 분배하는 방식이 부정의할 수 있는가?

126)[25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의는 인간이 구성한 것이며, 따라서 정의가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심스럽다. 정의의 원칙은 그 형식에서 그 자체가 다원주의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는 상이한 근거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 보기
- ㄱ. 각각의 사회적 가치의 분배 영역에 내재적인 원칙을 모색해야 한다.
 - ㄴ. 지배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다원적 평등이 실현된 사회이다.
 - ㄷ. 분배 정의의 원칙은 문화적 다양성과 정치적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ㄹ. 한 사회의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하나의 가치에 의해 통합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3-7

교정적 정의(형벌, 사형제)(수특 7강)

* 번호 3-6은 독해형이므로 생략함.

zola 풀어!

127)[18 ebs 수특, 주관식]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처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상당한 처벌은 상당한 고통이다. 또 한편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상당한 쾌락 그 자체 또는 쾌락에 해당하는 어떤 것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더 확실하다. 그러므로 위법 행위의 이득에 대한 우세함을 유지하려면 처벌이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처벌은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가시킬 수밖에 없다.
 을: 형벌의 목적은 감각적 존재인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데 있지 않고, 이미 범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작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 <보기>
 ㄱ. 갑은 형벌이 그 자체로는 악이지만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ㄴ. 을은 형벌의 유일한 목적을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형벌의 목적을 범죄를 예방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형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범죄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 Zola 갑, 을 사상을 구분할 수 있는 문구는?

128)[25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공적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의 형벌이고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그것은 다른 한쪽보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을: 처벌의 가치가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보다 작다면, 그런 행위는 처벌이 있음에도 다시 저질러질 것이고, 그런 처벌은 비효과적이게 된다.

- ① 갑: 형벌은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해 가해질 수 없다.
- ② 갑: 형벌권의 기초는 형벌 받기를 의욕하는 범죄자의 동의이다.
- ③ 을: 형벌의 양은 범죄를 지저르도록 하는 유혹의 강도에 상응해야 한다.
- ④ 을: 형벌을 통해 예방될 해악과 함께 형벌로 초래되는 해악도 고려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형벌은 공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정해지고 집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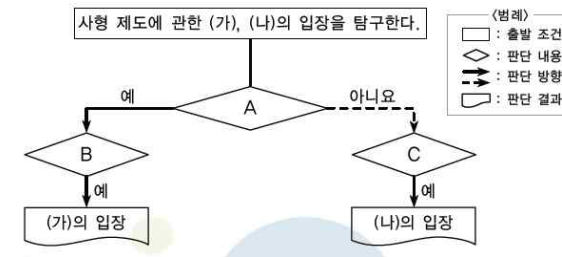
129)[17 ebs 수특]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모든 인간은 살인자에게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죽음을 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다. 사회 계약은 시민의 생명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다. 사회 계약을 할 때 시민은 국가에 생명 박탈의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국가는 타인을 살해한 시민을 사형에 처할 권리가 있다.
 을: 사회 조직은 구성원 모두의 총의로 움직인다. 그러나 사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탈취할 권능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였겠는가? 사형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고 또 권리일 수도 없다. 사형은 한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이 국민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선전 포고이다.

- ① 사형 제도는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가?
- ② 사형 제도는 범죄자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
- ③ 사형 제도는 실질적인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④ 사형 제도는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인가?
- ⑤ 사형 제도는 국가가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130)[15 ebs 수특, 주관식] (가), (나)의 입장을 아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 (가) 모든 인간은 살인자에게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죽음을 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다. 사회 계약은 시민의 생명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다.
 (나) 사회 조직은 구성원 모두의 총의로 움직인다. 그러나 사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탈취할 권능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누가 자기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겠는가?



- <보기>
 ㄱ. A: 국가는 시민들이 생명 보전을 위해 사형에 대한 권리를 지니는가?
 ㄴ. B: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ㄷ. C: 중대한 범죄자에 대한 응보를 위해 사형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ㄹ. C: 모든 인간 존재는 자신의 생명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니는가?

131)[19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형벌은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 인 인상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작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을: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 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그 때문에 그 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비판 방향	비판 내용
①	갑이 을에게	형벌이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모르고 있다.
②	갑이 을에게	형벌이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하여 부과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③	갑이 을에게	사형은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을 고려하는 형벌임을 모르고 있다.
④	을이 갑에게	형벌이 범죄의 해악 정도보다 무겁게 부과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⑤	을이 갑에게	사회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형벌의 질과 양을 제시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132)[20 ebs 수특, 주관식] (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에 대해 제기할 적절한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처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의 생득적인 인격성은 설령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보호해 준다.
 (나) 처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수준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된다. 위법 행위의 이득은 상당한 쾌락으로, 위법 행위의 이득은 처벌보다 대체로 더 확실하다. 처벌은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처벌은 크기라는 면에서 가치를 부가시킬 수밖에 없다.

보기
 ㄱ. 형벌은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필요악임을 모르고 있다.
 ㄴ.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 존중의 차원에서 폐지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ㄷ. 형벌의 질과 양은 동해 보복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ㄹ. 범죄자의 인격을 공공선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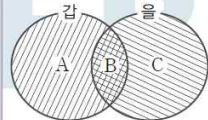
133)[20 ebs 수특]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회 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 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범죄인에게 가해 지는 사형도 이와 유사하다.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을: 형벌이 정당화되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強度) 만을 가져야 한다.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 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종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 저온다.
 병: 공적인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동등성의 원리이다. 제아무리 고통 가득한 생 (生)이라 해도 생과 사(死) 사이에 동등성은 없으며, 그러므로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 ① 갑: 사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 ② 을: 형벌은 공공의 선(善)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 ③ 병: 범죄자는 자율적으로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 ④ 갑, 을: 사형 제도는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존치되어야 한다.
- ⑤ 갑, 병: 형벌의 양과 질은 사회적 유용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34)[21 ebs 수특] 옳은 것은?

(가) 갑: 공동체가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는 격언에 따라 이익 때문에 형벌이 부과되 어서는 안 된다. 정의가 무너지면 지상에서 인간의 삶은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복법이다.
 을: 공동체 전체의 행복은 모든 법령의 일반적 목적이다. 만일 형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형벌은 범죄자의 행위와 그 외 일반인 의 행위를 통제하고자 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① A: 형벌은 교정과 본보기의 방식으로써 작용되어야 한다.
- ② A: 형벌은 최대한 효과적이면서도 관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 ③ B: 형벌의 집행을 통해 사회의 공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 ④ C: 형벌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 ⑤ C: 범죄 그 자체에 대한 보복을 형벌의 주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135)[21 ebs 수특]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법은 일반 의지로부터 나온다. 법의 목적은 전원의 최대 행복이다. 이 목적은 개인이 생명권을 비롯한 자연권 전체를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이다.
 을: 법은 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개인이 사회에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다. 사형은 한 국가가 한 시민을 죽이는 것이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벌이는 전쟁이다.
 병: 법은 실천 이성이 외적으로 법칙을 수립해 개인을 강제하는 권리의 상징이다. 보복법에 따르는 형벌의 권한은 공적 이성에 있다. 그러함에도 형벌 받기를 의욕하는 범죄자의 계약을 그 권한의 기초로 삼는 것은 범죄자 자신을 재판관이 되게 하는 것이므로 법의 왜곡이다.

(나)

- ① A: 사형은 생명 보존의 사회 계약을 이행하는 형벌임을 모르고 있다.
- ② B: 형벌 부여의 타당한 척도는 범죄자의 범행 의사에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③ C: 시민 사회의 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형벌을 부과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④ E: 어떠한 국가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음을 모르고 있다.
- ⑤ D, F: 형벌 받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136)[22 ebs 수특] 옳은 것은?

갑: 인간은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다. 그의 생득적인 인격성은 설령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 준다.
 을: 모든 법령이 지녀야 하는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의 전체적 행복이다. 그렇지만 모든 처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만일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병: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도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집단의 도덕은 자연적 충동에 버금갈 만한 사회 세력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하다.

- ① 갑: 사형은 살인범을 이성적 존재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 ② 을: 형벌은 범죄 예방에 기여하므로 그 자체로 선(善)이다.
- ③ 병: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동일하다.
- ④ 갑, 을: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 ⑤ 갑, 병: 선의지는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37)[14 ebs 수특 각색]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벌에 있어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 (나) 사형 제도는 범죄 억제책으로서의 효과가 없다. 인간의 의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기 때문이다. 사형이라는 법적 살인은 상당한 연구와 격식을 갖추고 집행되는 까닭에 국민들의 의식에 유해하다.
- ① 중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 ② 사형 제도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 ③ 인간의 생명은 계약을 통해 통치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 ④ 유용성의 차원에서 사형 제도의 존재를 논하는 것은 인격을 수단화하는 것이라고!
 - ⑤ 범죄자가 의욕한 형벌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정의의 본질이라고!!

138)[16 ebs 수특] (가)의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갑: 모든 법령의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그러한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을 없애려 한다. 그렇지만 모든 처벌은 그 자체로서 악이다. 공리성의 원리에 의할 때, 만일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을: 형벌에 있어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살인을 한 자는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것이 그를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을 모든 가혹 행위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나)

- ① A-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 ② A-형사 처벌의 근본적 목적은 범죄의 억지와 예방에 있는가?
- ③ B-처벌은 필요악이므로 가급적 최소화시켜야 하는가?
- ④ C-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인가?
- ⑤ C-사형은 살인자의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가?

139][24 ebs 수특, 주관식] 적절한 것만을 선택하세요~

갑: 형벌로서 사형에 처하는 것은 살인자에게 회생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사회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하며, 사형은 계약의 위반에 대한 형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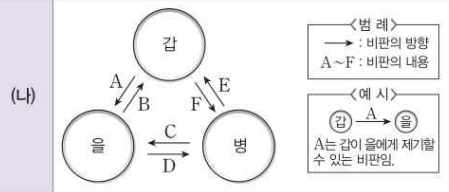
을: 형벌로서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을 모든 가혹 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살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지는 것이다.

• 보기 •

- ㄱ. 갑: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주권자가 위임할 수 없는 권리이다.
- ㄴ. 갑: 자국의 시민을 살해한 사람은 누구나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된다.
- ㄷ. 을: 살인범의 생득적 인격성은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방호해 준다.
- ㄹ. 갑과 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필요하다.

140][25 ebs 수특] 어떻게 푸는지 아시죠???

(가) 갑: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살인범은 엄격한 보복법에 따라 사형 시켜야 한다. 시민 사회가 해체될 때조차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먼저 처형되어야 한다.
 을: 형벌의 남용은 결코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했다. 제대로 조직된 국가에서 사형은 정말로 유용하고 정당한가? 사형은 국가가 한 시민의 존재의 파괴를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벌이는 전쟁일 뿐이다.
 병: 사회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자기 보존이 목적이다. 남의 희생으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필요할 때는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계약을 하게 된다.



- ① A: 사회에 가장 큰 해악을 초래한 범죄가 가장 중한 범죄임을 간과한다.
- ② B와 D: 사형은 어떤 의미에서도 권리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③ C: 살인범에게 사회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E: 살인범도 사회 계약에 참여한 자이므로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⑤ F: 사회적 권리를 침해한 살인범은 국가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3-8

국가와 시민의 윤리(1) - 국가관(수특 8강)

☞ Zola Guide 새롭게 추가된 부분임. 일부는 14~16학년도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임. 과거에 윤사에서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을 막 끌어왔음.

zola 풀어!!

141][16-10교-11, 윤사, 주관식]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자연의 산물들 중 하나인 국가는 최고선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이다.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고, 삶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통치 형태이다. 개인으로 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나 최선의 생활이란 덕이 있는 생활이다.

<보기>

- ㄱ. 국가에 대한 복종 의무는 사회 계약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ㄴ. 개인과 국가는 모두 선의 실현을 목표로 추구한다고 본다.
- ㄷ. 국가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낸 것으로 본다.
- ㄹ. 개인은 정치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142][20-9-13, 윤사]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자연 상태의 평화로움과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 다툼을 해결할 법률과 공평한 재판관 및 집행 권력의 부재라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로부터 정치사회 뿐 아니라 입법 권과 행정권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을: 사회 계약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일반 의지의 힘으로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지만,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 ① 갑은 국가 권력 분립이 가능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본다.
- ② 갑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침해받아서 안 될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 ③ 을은 시민의 주권은 계약에서만 정부에 양도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사유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시민의 동의 없이도 정치적 복종 의무가 정당화된다고 본다.

143)[17-6-14. 윤사] 갑은 고대, 을은 근대 사회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자연스럽게 가족과 마을을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결사체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에 속하지 않은 고립된 자는 동물이거나 아니면 신일 것이다.
 을: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공동사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① 갑은 가족이 마을이나 국가보다 완전한 최고의 공동체라고 본다.
- ② 갑은 정치적 의무를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 ③ 을은 국가 권력은 분할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될 수 없다고 본다.
- ④ 을은 묵시적 동의로도 개인에게 정치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정치적 의무를 인간이 가지는 자연적 의무의 하나로 본다.

144)[12-9-11] 그림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 병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그림 생략)

갑: 통치자는 일을 도모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의 존재조차도 모를 때 가장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을: 통치자는 백성들이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며, 서로 이익을 나눌 때 천하가 평안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병: 통치자는 인간이 이기적이고 간사한 지혜에 차 있으므로 오직 상과 벌로써 다스려야 합니다.

- ① 천하의 이로움이 곧 의로움을 주장하는가?
- ② 백성들의 무지하고 무욕한 삶을 강조하는가?
- ③ 사치를 삼가고 생산에 힘쓸 것을 주장하는가?
- ④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가?
- ⑤ 본성의 변화를 위해 법(法)과 술(術)을 강조하는가?

145)[10-수능-8. 윤리]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 병이 주장하는 사상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통치자가 자연을 법칙으로 삼아 다스림이 없이 백성을 다스리면 백성은 저절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을: 군주는 하늘을 법도로 삼아 생산을 저해하는 번잡한 예를 고치고 천하의 이로움을 일으켜야 하지요.
 병: 왕이 성왕(聖王)의 법도를 따르지 않아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지 않는다면 쫓아내야 마땅합니다.

- ① 갑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한 문명 사회를 추구한다.
- ② 을은 무지하고 무욕한 백성들이 사는 사회를 지향한다.
- ③ 갑, 을은 인륜 도덕에 바탕을 둔 백성의 교화를 강조한다.
- ④ 갑, 병은 민생 안정을 위한 규제의 시행을 군주의 역할로 본다.
- ⑤ 갑, 을, 병은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백성의 평화로운 삶을 중시한다.

146)[11-9-16. 윤리] 그림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 병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그림 생략)

갑: 성인(聖人)은 만물을 소유하지도 않고 공(功)을 주장하지도 않으며 백성들에게 무욕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을: 성인은 부모조차 계산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대한다고 여겨, 이(利)와 해(害)를 통해 조종하는 제도로 다스립니다.
 병: 성인은 힘이 아닌 덕(德)으로써 백성들을 감화시키고,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합니다.

- ① 갑은 만물을 생성하는 인(仁)의 덕을 본받아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인위적인 예법으로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본다.
- ③ 병은 시비 분별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법술(法術)로, 병은 인의(仁義)로 통치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 병은 도덕적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147)[19 ebs 수특, 윤사]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모든 사람은 본래 자유로우며, 그 자신의 동의를 제외한 어떤 것도 그를 지상의 권력에 복종시킬 수 없다. 그런데 동의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로 구분된다. 명시적 동의를 통해 개인은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자 정부의 신민이 된다. 명시적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 된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국가는 개인의 재산 보호와 공공선의 실현을 추구한다.	✓			✓	✓
국가 권력을 없애거나 바꾸는 최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		✓	✓
국가의 법률에 대한 정치적 복종의 의무는 계약을 통해 발생한다.		✓	✓	✓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		✓		✓

148)[19 ebs 수특, 윤사]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의의 의무는 정의로운 현행 제도를 우리가 지지하고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나친 희생이 없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직 확립되지 못한 정의로운 체제를 세워갈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롭거나 그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정의로운 경우 모든 사람은 현존 체제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할 자연적 의무를 갖습니다.

- ① 정의의 의무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 ② 정의로운 사회 체제에서는 정의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 ③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자연적 의무이다.
- ④ 부정의한 법일지라도 항상 준수해야 하는 것은 자연적 의무이다.
- ⑤ 자연적 의무는 의무를 지기로 약속한 사람들에게만 구속력을 갖는다.

149)[20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바르게 답한 것은?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이다. 내가 나 스스로를 통치하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것은 너도 너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하고 그의 모든 활동을 나와 마찬가지로 승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권리를 양도하는 목적은 자신의 안전 보장과 생명 보존에 있다. 따라서 설령 한 인간이 말 또는 기타 표시에 의해서 이 목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의 의지나 의도였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질문	대답
①	인간은 이성을 지닌 선한 존재인가?	예
②	통치권자는 평화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예
③	인간은 생존을 위해 자연권을 양도하는 것인가?	아니요
④	국가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가?	아니요
⑤	안정적인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분할되지 않아야 하는가?	아니요

150)[20 ebs 수특, 주관식]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공동 사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보기 】
 ㄱ. 국가는 자연 발생하는 공동체의 한 형태이다.
 ㄴ. 인간이 지닌 자연권은 양도될 수 있는 것이다.
 ㄷ. 인간의 모든 권리는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다.
 ㄹ.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이익을 보장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151)[21 ebs 수특]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社稷)이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벼운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의 신임을 얻어야 천자가 되고, 천자의 신임을 얻어야 제후가 되고, 제후의 신임을 얻어야 대부가 된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제후를 바꾸고, 제사의 때를 어기지 않고 잘 지냈음에도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면 사직을 바꾼다.
 을: 인간이 사회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만약 입법부가 야심, 공포, 부패로 인해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장악하거나 다른 자들의 수중에 넘겨줌으로써 사회의 기본적 규칙을 침해하게 되면, 언제나 그들은 인민이 그들에게 맡긴 권력을 신탁 위반으로 상실하게 된다. 그 권력은 인민에게 되돌아가며, 인민은 원래의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함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안보를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①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는 통치자는 교체될 수 있는가?
- ② 통치자는 올바른 인격을 갖추고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하는가?
- ③ 통치자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가?
- ④ 정당하게 세습된 권력은 민주적 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가?
- ⑤ 통치자의 권력은 개인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이후에 생겨나는가?

152)[24 ebs 수특]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정은 날마다 되풀이되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이다. 마을은 날마다 되풀이되는 필요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가정으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국가는 여러 부락으로 구성되는 완전한 공동체인데, 국가는 이미 완전 자급자족이라는 최고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 공동체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모든 국가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 보기 •
 ㄱ. 국가는 본성상 가정과 개인에 우선한다.
 ㄴ. 국가 공동체 안에서 살고자 하는 행위는 경험적으로 습득된 것이다.
 ㄷ. 좋음과 나쁨, 옳고 그름 등의 인식 공유에서 가정과 국가가 생성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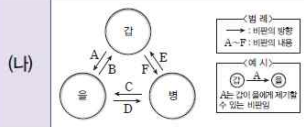
153)[22 ebs 수특] 옳은 것은?

갑: 백성을 인도하기를 정(政)으로 하고 다스리기를 형(刑)으로써 하면 백성이 죄짓는 것은 먼 하나 부끄러워함이 없다. 인도하기를 덕(德)으로써 하고 다스리기를 예(禮)로써 하면 부끄러워함이 있고 또한 바르게 된다.
 을: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군주는 필연적으로 압도할 책략(策)을 장악해야 하며, 신하를 제압하기 위해 군주는 존엄한 위세(勢)에 처해야 한다. 명령은 행해지고 금령(禁令)이 지켜짐에 따라 군주는 존엄해지고 신하는 비하(卑下)된다. 즉 군주의 존엄성은 친애심 때문이 아니라 압도적 위세 때문이다.

- ① 갑은 예가 개인의 수양 덕목일 뿐 아니라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데도 기여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 인의(仁義)의 도덕을 공적 영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통치자는 명분[名]보다 실리[實]를 추구함으로써 백성들이 믿고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므로 예의[禮]로 교화함으로써 이상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통치자가 법령과 형벌을 근본으로 삼고 덕치(德治)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154)[22 ebs 수특] 옳은 것은?

갑: 인간이 본래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계약을 통해 공동 사회를 구성하여 가입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구성원들이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평화롭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정부를 조직하고 그들의 권리를 신장한다.
 을: '민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는 부정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쟁 상태에서는 소유권도 지배권도 없으며, 네 것과 내 것의 구분도 없다. 평화를 추구하는 본능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기인한다. 인간의 이성만은 평화의 조항들을 제안하는데 우리는 이를 자연법이라 한다.
 병: 구성원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공동의 힘에 다해 지킬 수 있는 결합 형식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저마다 모든 이와 결합을 맺으며, 자기 자신 외에는 복종하지 않고 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운 것. 이것이야말로 사회 계약이 해결해 주는 근본 문제이다. 우리는 저마다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둔다.



- ① A: 어떤 사람도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복종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② A, C: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한 행위는 이성에 따른 합리적 행위임을 간과한다.
- ③ B: 국가 권력의 분립 없이 통치자에게 모든 권력과 힘을 양도하여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들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C, E: 통치 권력은 자의적 명령을 통해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D, F: 사회 계약을 통해 개인은 자연적 자유를 잃게 되지만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됨을 간과한다.

155)[21 ebs 수특, 주관식] 있는 대로 고르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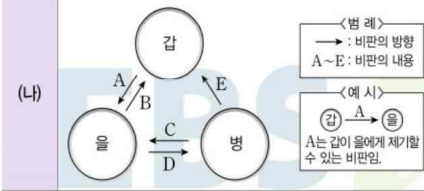
천하의 가장 큰 해는 무엇인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고, 다수가 소수를 폭압하며,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속이는 것이 천하의 큰 폐해이다. 또한 임금 된 자가 은혜롭지 않고, 신하 된 자가 충성스럽지 않고, 아버지 자가 자애롭지 않고, 자식 된 자가 효성스럽지 않은 것이 천하의 큰 폐해이다. 이러한 폐해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남을 미워하고 해치는 데 있다. 천하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행위는 평등주의[兼]가 아니라 차별주의[別]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서로 차별하는 자들이야말로 결과적으로 천하에 큰 해독을 끼치는 자들일 것이다.

- 보기
- ㄱ. 백성에게 은혜롭지 않은 군주는 구성원의 안정된 삶을 위협할 수 있다.
 - ㄴ. 자국에 대한 사랑을 확대하여 타국에 적용하는 인(仁)을 추구해야 한다.
 - ㄷ. 만민은 국가 경계를 넘어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돌보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 ㄹ. 군주는 백성들이 사랑을 나누며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통치해야 한다.

156)[24 ebs 수특]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열악한 상황에 시달리게 된다. 그 결과 인간은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한다.
 을: 주권자는 시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탄생한 인위적 인격이다. 입법권과 같이 국가 행정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은 주권자에게 있다.
 병: 사회 계약은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일반 의지를 형성하는 것이며, 신체와 재산을 지켜 주는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 보기
- ㄱ. A: 정치권력의 신장 위반 여부는 오직 시민의 판단에 의존함을 간과한다.
 - ㄴ. B와 D: 국가는 군주와 시민 간 상호 계약 체결에 의해 형성됨을 간과한다.
 - ㄷ. C와 E: 군주는 계약의 주체들에게서 권한을 양도받은 대리인이자 주권을 대표하는 대표자임을 간과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57)[25 ebs 수특]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자연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따라서 자연권을 공동체에 양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있게 된다.
 을: 자연법의 집행권을 모든 사람이 포기하여 그것을 양도하는 곳에서만 정치 사회가 존재한다. 개개인은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들 상호 간에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한다.

(나)

<범례>
 → : 비판의 방향
 A, B : 비판의 내용

<예시>

<보기>
 ㄱ. A: 강제력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없음을 간과한다.
 ㄴ. A: 절대 군주제는 결코 시민 사회와 양립하여 존재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ㄷ. B: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인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58)[25 ebs 수특]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자연 상태, 즉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만인이 만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 코먼웰스는 다수의 사람이 신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이다.
 을: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폐단으로 각자는 자신의 평등, 자유, 집행권을 포기하여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병: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이행하는 이 계약은 일반 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단체 전체가 복종을 강요한다는 약속까지 암묵적으로 포함한다. 이것은 시민들이 자유롭기를 강요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나)

<범례>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

<예시>

- ① A: 자연 상태에서 처벌권은 불규칙적이고 불확실하게 행사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② B와 D: 사회 계약을 통해 시민은 모든 사적 의지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③ C: 정부의 신탁 위반 여부는 최종적으로 시민에 의해 판단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④ E: 통치자는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신의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님을 간과한다.
 ⑤ F: 공공의 평화를 위해 계약 주체들은 주권자인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함을 간과한다.

3-9

시민 불복종(수특 8강)

zola 문제

159)[19 ebs 수특]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조차도 불의의 하수인이 될 상황이라면 그 법을 어겨라. 양심에 따라 그 법에 저항하라.
 을: 시민들의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긴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① A: 다수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법만이 불복종의 대상이다.
 ② A: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B: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부정의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④ C: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만이 불복종의 대상이다.
 ⑤ C: 극단적으로 부정의한 사회에서도 시민 불복종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 160)[16 ebs 수특, 주관식]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만 '√'를 니가 직접 니 손으로 표시해라!!!
- * 만일 우리가 헌법을 사회 협동 체제의 기본 헌장으로 생각한다면 헌법이 정의롭고 그 운용에서 오는 혜택을 지금까지 받아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계획일 경우, 그리고 제정된 법규나 정책이 일정한 한도를 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공정한 경기 운영 원칙에 입각해서 그것에 복종할 의무를 갖는다.
 - * 법 체계가 우리에게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는 법 체계가 원초적 입장에서 합당한 정의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점	니가 √ 표시해!
(1) 다수결로 정해진 모든 법은 정의로우므로 복종해야 한다.	
(2)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복종하지 말아야 한다.	
(3) 법 체계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우리는 그 법 체계를 존중해야 한다.	
(4)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에 대한 합법적인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법에 불복종할 수 있다.	

161)[18 ebs 수특, 주관식]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시민 불복종의 문제는 거의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의해 생겨납니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야 합니다.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기

- ㄱ. 시민 불복종으로 인한 법적인 처벌을 수용해야 한다.
- ㄴ. 시민 불복종은 공공적인 정의관에 근거를 두고 행해져야 한다.
- ㄷ.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저항 행위도 시민 불복종에 해당한다.
- ㄹ. 종교적 차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는 시민 불복종의 범주에 포함된다.

162)[22 ebs 수특]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민 불복종은 헌법에 근거해 정당화되므로 단순한 도덕적 항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유의미한 행위이다. 법의 합헌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최고 재판소의 판결이 있더라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불복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이란 언제나 최고 재판소의 판결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법의 합헌성이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복종한다면 그러한 법을 고칠 기회를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불공정한 법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

- ① 법의 합헌성 여부가 문제가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 ② 헌법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법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다.
- ③ 법의 합헌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율적 판단에 따라 행해지면 안 된다.
- ④ 합헌성이 의심스러운 법에 대한 최고 재판소의 판결에 불복종할 수 있는 것이다.
- ⑤ 헌법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사람들의 견해가 아닌 헌법 그 자체에 근거해야 한다.

163)[21 ebs 수특] 옳은 것은?

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대신에 그것은 다수에게 알리려는 시도이거나, 의원을 설득하려는 것이거나, 서둘러 내려진 결정에 대해 재고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입니다. 법에 저항하지 않으므로써, 비폭력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이므로써,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존중합니다. ...[중략]... 시민 불복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단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단한 도덕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각 사회의 시민 불복종이 그 사회에 가져올 손익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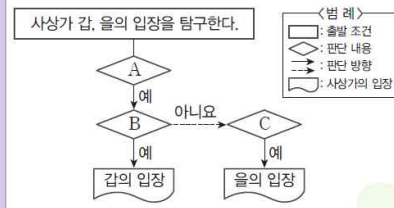


- ① 다수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② 법이나 정책에 대한 불복종은 항상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부정의한 법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되어야 한다.
- ④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효용성이 아니라 절대적 도덕 법칙에 따라야 한다.
- ⑤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 방법보다 언제나 우선한다.

164)[21 ebs 수특] 옳은 것은?

(가) 갑: 정의롭지 못한 법이 존재한다고 하자. 그 법을 준수하는 데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는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법을 위반할 것인가? 나는 서슴없이 말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거부해야 하며, 한 표 앞선 다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자신들을 통해 정의가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을: 정의롭지 못한 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 ① A: 부당한 법에 대해서는 개인의 양심이 준법의 의무보다 항상 우선하는가?
- ② B: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하는가?
- ③ B: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위법 행위라 할지라도 법적인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가?
- ④ C: 시민 불복종은 완전히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이어야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⑤ C: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이 아닌 개인적인 도덕 원칙에 근거해야 하는가?

165)[22 ebs 수특] 고르세요.

나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에게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성패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불복종이 공동체에 대한 호소라면 왜 공동체가 이미 수용하고 있는 원칙들을 근거로 하는 호소여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현존하는 사회가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다고 보는 공유된 정의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이상일 뿐이므로 공유된 정의관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사상가는 시민 불복종이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공동 사회의 다수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주장이 ㉠은 점을 간과한다고 본다.

- ① 공유된 정의관은 만장일치를 통해 도출되므로 변경할 여지가 없다
- ② 시민 불복종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심각하게 부정의하면 성립할 수 없다
- ③ 공유된 정의관에 속하지 않는 영역들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완전한 정의관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대한 불복종이 가능하다
- ⑤ 시민 불복종은 현존하는 법에 대한 위반이므로 민주적 의사 결정을 좌절시키려는 시도가 된다

166)[16 ebs 수특, 주관식]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에 해당하는 적절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이)란 대체로 질서 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그러한 사회에서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그것은 정상적인 저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다소 고의적인 부정의가 행해질 경우, 그리고 그 부정의가 시민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일 경우,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경우에 유사한 방식으로 저항하려는 성향이 일반화되어도 합당한 결과를 가지게 될 경우에 정당화된다.

- < 보기 >
- ㄱ.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을 거부하였다.
 - ㄴ. 인권을 부인하는 독재 체제를 타도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 ㄷ.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생활 편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시위를 했다.
 - ㄹ. 민주 국가에서 특정 종교의 의례를 금지하는 법을 일부러 따르지 않았다.

167)[24 ebs 수특, 주관식]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세요~~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를 특징짓는 공공적인 정의관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고 규정된다. 시민 불복종의 이론은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순수히 법적인 관점을 보충하고 있다. 그것은 법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과 민주 체제의 기본적인 정치적 원리들에 호소함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화하려는 것이다.

- 보기 •
- ㄱ. 시민 불복종은 경교나 혼계를 넘어 그 자체가 위협일 수 있다.
 - ㄴ.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덕적으로 옳은 방식이다.
 - ㄷ. 시민 불복종은 비록 불법적인 것이긴 하나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가 될 수 있다.
 - ㄹ.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이 침해될 무질서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168)[24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시민 불복종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부정의하다고 간주되는 법이나 정책도 어기지 않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을: 시민 불복종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빈적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 ① 갑은 시민 불복종이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시민 불복종을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시민 불복종이 부정의한 문제를 다수에게 알려 다수를 불복종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시민 불복종은 특정한 원칙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결과주의 관점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시민 불복종은 불의한 법을 개혁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본다.

169)[25 ebs 수특]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인간의 의무가 어떤 악을 근절하는 데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는 최소한 그 악과 관계를 끊을 의무가 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을: 인간의 가장 중대한 자연적 의무는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롭다면, 법의 부정의가 어느 정도 이상을 지나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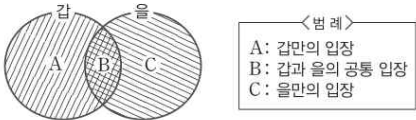
< 보기 >

ㄱ. 갑: 개인의 양심에 따라 법과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ㄴ. 을: 다소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을: 법이 부정의하다는 사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ㄹ. 갑과 을: 다수에게 합법적 호소를 성실히 한 후에 시민 불복종에 참여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70)[25 ebs 수특]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갑: 시민 불복종은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만 아니라 그것이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이다. 공공적 정의권의 기본 원칙에 대한 오래도록 끈질기고 의도적인 침해는 굴종 아니면 반항을 일으키게 된다.
 을: 시민 불복종은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결정이 진실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 때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결정이 다수의 견해의 진정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도 심각하게 그릇된 일일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있다.

(나) 

< 보기 >

ㄱ. A: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행위이다.
 ㄴ. B: 시민 불복종의 효율성이 감소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ㄷ. B: 다수결 원칙에 부합하는 법이더라도 이에 복종할 의무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ㄹ. C: 시민 불복종은 헌법을 규제하는 정치적 원칙에 의해서 지도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zola amazing 정답!!

- 1) ㄴ, ㄷ
- 2) ③
- 3) 3번-①, 4번-②
- 4) ④
- 5) ②
- 6) ㄱ, ㄹ
- 7) ④
- 8) ㄴ, ㄷ
- 9) ④
- 10) ㄱ, ㄹ

☞ Zola Guide 제시문이 '유학'이 아니라 '도가'임.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과 독해력이 필요함. ㄱ은 동양 사상이면 동의할 내용임. ㄹ은 도가에만 해당함.

- 11) ①
- 12) ③
- 13) ③
- 14) ②
- 15) ③

☞ Zola Guide 바나나 강의에서 했던 선지임. 틀린 부분은 바나나 강의 혹은 교재 다시 확인할 것! 문장(선지) 바나나에 나오는 내용임.

- 16) ⑤
 - 17) ④
- 갑: 노자. 을: 장자.

- 18) ③
- 19) ①
- 20) ㄱ, ㄴ, ㄷ
- 21) 을
- 22) ③
- 23) ⑤
- 24) ㄴ, ㄷ
- 25) ③
- 26) ⑤
- 27) ④
- 28) ㄱ, ㄷ, ㄹ
- 29) ③
- 30) ④
- 31) ㄷ, ㄹ
- 32) ㄴ, ㄷ
- 33) ①
- 34) ⑤
- 35) ④
- 36) ㄱ, ㄴ, ㄷ
- 37) ②

38) ①	54%	8%	15%	4%	19%
39) ②	3%	68%	19%	7%	3%

40) ③
 41) ③
 ☞ Zola Guide 선지 ⑤의 '침해'라는 표현은 '제한' 또는 '간섭'으로 바꾸는 것이 좋음.

- 42) ⑤
- 43) ⑤
- 44) ②
- 45) ㄷ, ㄹ
- 46) 병
- 47) ①
- 48) ③
- 49) ㄷ, ㄹ

- 50) ㉔
 51) 나, 다
 ▶ Zola Guide 당시 '나'에 대한 질문이 많았음. 뇌들 머리 속의 지식이나 뇌피셀은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 없고, 제시문 '속'으로 들어가서 판단하길 바람. 나 제시문에서 그대로 확인 가능함. 눈 앞에 있는 제시문의 정답은 놓치는 제시문 바나나 지적용으로 적절한 문제임.
- 52) 가, 나
 53) 가, 나
 54) ㉔
 55) ㉔
 56) ㉔
 57) ㉔
 58) ㉔
 59) 가, 나, 다
 60) ㉔. 자료 분석형임. good~
 61) ㉔
 62) ㉔
 63) ㉔
 64) ㉔
 65) ㉔
 66) ㉔
 67) ㉔
 68) 1, 2, 3
 69) ㉔ (㉔도 가능하지만 수능에서 다룰 가능성은 낮음)
 70) 다, 라
 71) 나, 라
 72) ㉔
 ▶ Zola Guide 그림 속의 남자 얼굴 눈팅해 두셈. 질적 공리주의자인 '밀'임.
- 73) ㉔
 74) 나, 라
 75) ㉔
 76) ㉔
 77) ㉔
 78) 다, 라
 79) 나, 다
 ▶ Zola Guide '정조'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국어 사전 찾기 바람. 시험지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남의 국어 및 학습에 문제가 있다는 것임. 수능까지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갈 것!
- 80) 나, 다, 라
 81) 가, 다
 82) ㉔
 83) 다, 라
 84) 나, 라
 85) ㉔
 86) 가, 나, 라
 87) 가, 나, 다
 88) ㉔
 89) 가, 라
 90) ㉔
 91) ㉔
 92) 가, 나, 다
 93) 다, 라
 ▶ Zola Guide 사회적 자본을 주제로 한 기술 문제가 있으니 확인할 것. 바나나 강의에서 제시문-선지 간의 관계 유형 확인할 때 다루었던 문제임.
- 94) ㉔
 95) ㉔
 ▶ Zola Guide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포털 사이트(네이버나 다음)의 사전 찾아보는 것을 권면함. "‘건리사의’의 의미가 뭐예요?"라는 이만 질문을 커뮤에 올리는 건 남 공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임.
- 96) ㉔
 97) ㉔

- 98) ㉔
 99) ㉔
 100) 나, 다
 101) 갑
 102) ㉔
 103) 나, 라
 104) ㉔
 105) ㉔
 106) 나, 다
 107) ㉔
 108) ㉔
 109) ㉔
 ▶ Zola Guide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개념+독해 문제임.
- 110) ㉔
 111) ㉔
 112) ㉔
 113) ㉔
 114) 가, 다, 라
 115) ㉔
 116) 가, 다
 117) 다, 라
 118) 가, 나
 119) ㉔
 120) 가, 다, 라
 121) ㉔
 122) ㉔
 123) 가, 다, 라
 124) ㉔
 ▶ Zola Guide 롤리신 분은 공리주의(주제 번호 1-3) 도덕 판단 기준과 '응용'을 다시 확인할 것.
- 125) 가, 나, 라
 가. 갑-공리-결과주의, 을-롤스-절차주의, 병-노직-절차주의...이렇게 해서 가를 해결하면 됩니다.
 126) ㉔
 127) 가, 라
 128) ㉔
 129) ㉔
 130) 가, 라
 131) ㉔
 132) 다, 라
 133) ㉔
 134) ㉔
 135) ㉔
 136) ㉔
 137) ㉔
 138) ㉔
 139) 나, 다
 140) ㉔
 141) 나, 라
 ▶ Zola Guide 고대 서양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행복=덕의 실현)임. 서양 윤리 이론(교재 번호 1-3)에서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 142) ㉔

2%	74%	15%	4%	2%
----	-----	-----	----	----

 ▶ Zola Guide 같은 로크, 율은 루소임. but(벗뜨) 남들은 사회계약론이라는 개념만으로도 답은 도출됨.
- 143) ㉔

8%	7%	16%	60%	9%
----	----	-----	-----	----

 ▶ Zola Guide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율은 로크임.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아서 Zola가 의아해 했던 기억이 남.
- 144) ㉔

22%	14%	9%	12%	43%
-----	-----	----	-----	-----

☞ Zola Guide 같은 노자, 을은 목자, 병은 한비자임. 풀이법은 크게 두 가지임. (1) 우선 갑과 을은 법과 술을 강조하지 않음. 법과 술을 강조하는 것은 한비자임. 그런데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함. 변화시키지 않음. 혹은 (2) 한 번에 갑, 을, 병 모두 본성 변화를 꾀하지 않음으로 해서 풀 수도 있음.

145) ⑤

☞ Zola Guide ⑥가 바나나 선지임. 패권주의는 '힘 또는 무력으로 억압하는 정치'를 말함. But 갑, 을, 병 사상이 누가인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공부해줄 것. 같은 노자(도가), 을은 목자, 병은 맹자(유가)임.

146) ④

3%	12%	2%	79%	4%
----	-----	----	-----	----

☞ Zola Guide 같은 도가, 병은 유가 정도인 것만 알면 됨. 단, 을은 한비자임을 알아야 함. 참고로 같은 노자, 병은 맹자임.

147) 정

148) ③

149) ②

150) 나, 르

151) ②

152) ③

153) ①

☞ Zola Guide 갑(유가, 공자), 을(법가, 한비자)임.

154) ③

155) 가, 다, 르

☞ Zola Guide 목가의 경애, 교리에 대한 내용임. 모르면 남이 공부를 안 한 거임. 목가가 지엽이 아님.

156) ①

157) ①

158) ⑤

159) ③

160) (3)√. (4)√

161) 가, 나

162) ③

☞ Zola Guide 드워킨이라는 사상가임. 알아두어야 함. 단, 처음 나올 때는 거의 독해형일 가능성 높음.

163) ②

164) ④

165) ④

166) 가, 르

167) 나, 다, 르

168) ③

169) ①

170) ③



서울대 사회교육과 수석(졸) 강사의 콘텐츠 보물 창고

(검색: 생운은 김준호)